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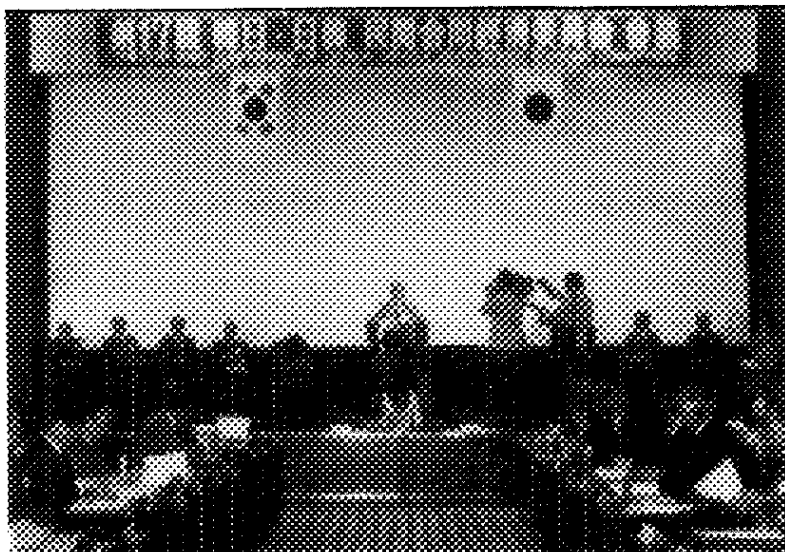
# 第17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17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1985. 4. 10~12. KYONGJU, KOREA

## 報 告 書

韓 日 經 濟 協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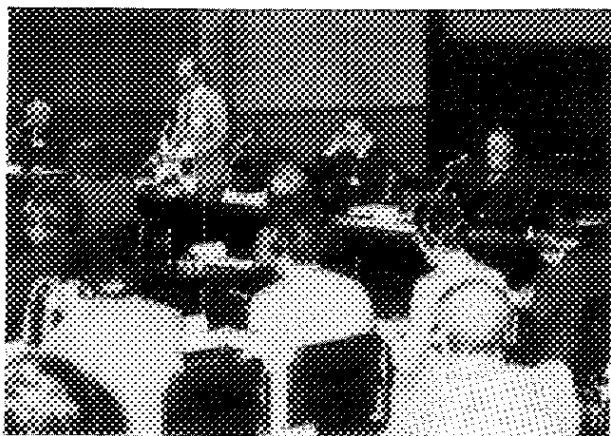
▲ 第 17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開幕式  
(慶州普門觀光센터 國際會議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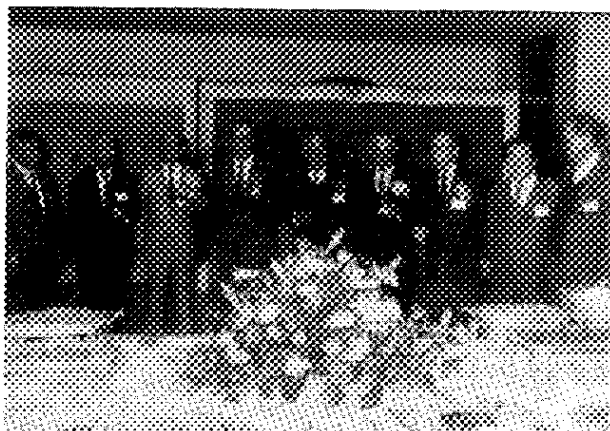
▲ 韓國側代表團員들의 모습



▲ 日本側代表團員들의 모습



▲ 閉會式에서 人事를 하는 朴泰俊 韓國側代表團長



▲ 朴泰俊韓國側代表團長（浦鐵會長）主催 리셉션에  
參席한 韓日兩國의 經濟界重鎮들  
（浦項製鐵本社・福祉센터）



▲ 開幕式에 앞서 故浦川淸人氏未亡人 愛子女史에게  
「鐵塔産業勳章」을 授與하는 申秉鉉副總理



次

1. 會議日程	5
2. 兩側團長 人事	7
가) 韓國側	7
나) 日本側	12
3. 致辭 및 祝辭	15
가) 申秉鉉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	15
나) 御巫清尙 駐大韓民國 日本國全權特命大使	20
4. 經過報告	22
5. 會議議題	25
6. 兩側代表團 名單	27
가) 韓國側	27
나) 日本側	33
7. 基調演說	38
가) 韓國側：韓日交易 擴大와 太平洋時代	38
韓國輸出入銀行 銀行長 朴聖相	
나) 日本側：2000 年代의 日韓經濟協力의 方向	48
日本長期信用銀行 會長 杉浦敏介	

8. 韓國의 外國人投資政策 및 制度 說明 .....	54
財務部 投資振興課長 金永燮	
※ 上記 說明에 對한 日本側 質問 .....	62
經濟團體連合會 專務理事 三好正也	
※ 上記 質問에 對한 韓國側 答辯 .....	64
財務部 投資振興課長 金永燮	
9. 各專門委員會 報告事項 .....	65
가) 第12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經過報告 .....	65
나) 第10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經過報告 .....	68
다) 第5回 韓日・日韓經濟協力 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經過報告 .....	72
라) 第3回 韓日・日韓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經過報告 .....	75
10. 經濟協力 .....	78
韓國側 提案：日本側의 對韓投資調查團 派遣 .....	78
(株)元仲實業 社長 朴魯聖	
日本側 答辯： .....	80
山一證券(株) 會長 植谷久三	
11. 技術協力 .....	83
韓國側 提案： .....	83

가) 技術移轉斡旋의 活性化 .....	83
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李尙秀	
나) 技能工 研修의 擴大 .....	84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 金啓鎬	
日本側 答辯: .....	88
가) 技術協力 提案에 對한 答辯 .....	88
川崎重工業(株) 會長 梅田善司	
나) 技能工研修 擴大提案에 對한 答辯 .....	90
經濟團體連合會 專務理事 三好正也	
12. 貿易增進 .....	93
韓國側 提案: 韓國의 輸出促進團 日本派遣 .....	93
裕東企業(株) 會長 金鎮河	
日本側 答辯: .....	99
丸紅(株) 專務取締役 西屋 知	
13. 海運協力 .....	101
日本側 提案: .....	101
日本船主協會 常務理事 三上良造	
韓國側 答辯: .....	102
韓國船主協會 專務理事 崔在洙	
14. 韓日國交正常化 20 週年記念行事 .....	103
韓國側 提案: .....	103
(i) 심포지움開催	

(ii) 青少年交流

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李尙秀

日本側 答辯： .....105

(i) 심포지움開催

日本長期信用銀行 常務取締役 竹内 宏

(ii) 青少年交流

日韓經濟協會 事務局長 高橋榮一

15. 共同聲明 .....107

16. 閉會辭 ..... 112

가) 韓國側： .....112

나) 日本側： .....114

附 錄： .....116

(I) 勳章授與 .....116

가) 敍勳追敍經緯 및 故인의 略歷報告 .....116

나) 勳章證 .....118

(II) 日本側 顧問 人事 .....119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顧問

日本商工會議所 會頭

五島 昇

## 日 程

### 4.10 (水)

16:00 開會……慶州觀光 CENTER 國際會議場

- (1) 韓國側 團長人事
- (2) 日本側 團長人事
- (3) 致辭……副總理
- (4) 祝辭……駐韓日本國 大使
- (5) 經過報告
- (6) 議長 選出
- (7) 議題採擇
- (8) 基調演說

韓國側

韓國輸出入銀行 銀行長 朴 聖 相

日本側

日本長期信用銀行 會長 杉浦敏介

18:30~20:00 RECEPTION (韓日共同主催)……慶州東急HOTEL  
CAFÉ TERRACE(1 層)

### 4.11 (木)

09:30~11:50 合同會議……慶州觀光 CENTER 國際會議場

12:00~13:30 午餐 (韓國側 主催)……慶州東急HOTEL  
RUBY ROOM (2 層)

14:00~15:40 合同會議

16:00~16:30 慶州 - 浦項綜合製鐵株



16:30 ~ 17:30 浦項綜合製鐵(株) 視察

17:30 ~ 17:40 浦項綜合製鐵(株) 本社 - 音樂堂

17:40 ~ 18:40 傳統藝術 觀覽

18:40 ~ 19:00 音樂堂 - 福祉 CENTER

19:00 ~ 21:00 RECEPTION……韓日經濟協會 會長(浦項綜合製鐵(株) 會長)主催, 福祉 CENTER

#### 4.12 (金)

07:30 顧問, 團長團, 專門委員會委員長 朝食食 喫 共同聲明合意  
慶州東急HOTEL 3層341,2號

09:30 ~ 10:20 合同會議……慶州觀光 CENTER 國際會議場

(1) 共同聲明 採擇

(2) 韓國側 團長人事

(3) 日本側 團長人事

閉 會

10:30 ~ 11:30 慶州 - 蔚山

11:30 ~ 12:15 現代重工業(株) 視察

12:15 ~ 13:15 午餐(現代重工業(株) 主催)

13:15 ~ 14:45 蔚山 - 金海

## 團 長 人 事

韓 日 經 濟 委 員 會  
委 員 長 朴 泰 俊

尊敬하는 日高輝 團長, 稻山嘉寬 顧問, 그리고 日本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韓・日兩國間의 國交가 正常화된지 20年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이하여, 우리 두 나라의 古代文明이 形成되는 時期에 精神的 支柱가 된 佛敎文化를 찬란하게 꽃피웠으며, 古代의 兩國文化交流에 있어 重要한 役割을 담당해 왔던 이 곳, 新羅의 古都 慶州에서 第1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會議을 開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韓國側 代表團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參席하신 日本代表團 여러분에게 따뜻한 歡迎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65年 두나라사이에 國交가 正常화된 이후 지난 20年間 兩國間에는 政治・經濟・社會・文化의 각 分野에 걸친 協力關係가 꾸준히 增進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近世의 한 時期에 兩國사이에 있었던 不幸한 過去의 그림자 때문에 지금까지 韓・日間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해 왔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1983年의 日本國 中曾根康弘 首相각하의 韓國訪問과, 지난해 우리나라 金斗煥 大統領각하의 日本訪問을 통하여 韓日兩國이 互惠平等과 相互理解 및 尊敬에 입각한 成熟한 友邦으로서 영원한 善隣友好協力關係를 구축해 가야 한다는데 意見의 一致

를 보았다는 事實은 兩國關係의 새로운 始作을 위한 의미있는 進展  
이었다고 하겠습니다.

親愛하는 兩國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이 合同委員會가 今年の 17 次 會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계속되어 왔다고 하는 事實이 證明해 주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兩國間 協力の 歷史에서 우리 經濟人들이 그 主導的인 役割을 해 왔  
다고 하는 事實에 自負心을 느끼고 있으며 이 점 여러분에게 감사  
를 드립니다.

아울러 兩國間의 새로운 協力關係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우리 民  
間經濟人들의 責務가 어느 때보다 莫重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  
다.

두나라 頂上의 相互訪問을 통해 이루어진 相互理解와 信賴의 精神  
을 하나하나 具體化하고 現實化시켜 나가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  
經濟人들에게 맡겨진 課業이기 때문입니다.

親愛하는 日本代表團 여러분!

지금 우리 大韓民國은 第5 共和國 政府가 出帆한 이후 착실히 다  
져온 政治・經濟・社會的 安定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0 年代야말로  
大韓民國이 世界史의 主役으로서 맡겨진 召命을 擔當할 수 있는 榮  
光의 世紀, 그리고 統一과 繁榮의 民族史의 課業을 成就하는 感激의  
世紀가 되어야 한다는 目標下에, 새로운 前進을 위한 民族的 力量을  
結集하려는 重要한 순간에 서있습니다.

이처럼 遠大한 方向設定은 오늘날의 國際政治・經濟・文化의 모든 分  
野에 있어 日本이 큰 影響力을 行使하는 重要한 位置에 서 있다는  
事實에 대한 肯定的인 評價에서 출발하여, 21 世紀야말로 「아시아・太

平洋의 世紀」가 될 것이라고 하는 世界史的 潮流와도 認識의 軌를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今後의 韓日民間經濟協力の 方向 또한 兩國經濟人들이 다가오는 「아시아・太平洋의 時代」를 바라보며 韓日兩國民의 善隣友好協力關係를 全世界에 誇示함으로써 環太平洋地域의 繁榮과 世界平和增進에 寄與해야 할 責任을 分擔한다고 하는 巨視的인 眼目에서 그 方向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本人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認識을 바탕으로 우리 民間經濟人들이 서로가 不足한 점을 배우고, 모자라는 점을 補完해주는 前向的인 자세로 協力한다면 두나라 사이의 해묵은 經濟懸案들도 어렵지 않게 풀려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兩國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먼저 貿易의 擴大均衡 問題에 관한 本人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의 兩國頂上會談을 비롯하여 雙方間에 機會있을 때마다 兩國間의 貿易을 擴大均衡의 方向으로 發展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原則이 確認되어 왔읍니다마는, 本人은 日本側의 두차례에 걸친 「對韓輸入等促進團」의 訪韓活動과, 韓國側의 「輸出促進團」 및 「投資誘致團」 訪日活動, 그리고 지금까지 首都圈으로 集中되었던 民間經濟交流의 패턴을 地方經濟人간의 폭넓은 交流와 協力으로 擴散시키는 등 두나라 經濟人들이 이러한 方向으로 꾸준히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마음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兩國間의 産業構造의 격차나 貿易外장벽의 문제등 몇가지 어려운 要因도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本人은 우리 民間經濟人들이 지

금까지 보여주신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오래지 않은 將來에 적절한 水準에서의 擴大均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尖端技術移轉문제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誠意있는 理解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世界各國이 競爭的으로 尖端技術産業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分野에서 日本이 最尖端을 달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韓國의 경우 뒤늦게나마 政府와 産業界가 이分野에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一部 과감히 投資를 하는 企業도 있으나, 韓國의 企業들이 日本의 尖端技術을 導入, 消化할 수 있는 準備나 態勢가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自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企業間의 協力에 의해 일부나마 移轉된 技術이 韓國의 尖端産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있는 것도 事實인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통상 國家單位의 문제로 논의되어온 것을 個別 企業間에 진지한 相互交渉을 통해 實質的 移轉을 이루어나가는 方向으로의 노력이 더욱 절실한 계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長期的인 眼目에서의 技術協力을 위해서는 企業間의 技術移轉뿐만 아니라, 企業內의 研究施設이나 學術研究機關에 종사하고 있는 要員들의 共同研究 및 相互交流를 통한 協力道 具體的으로 檢討해 볼 必要性이 있다고 하는 것이 本人의 생각입니다.

技術移轉問題와 관련하여 本人이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은 韓國의 技術水準向上이 우리의 對外支拂能力을 向上시키게 되고, 이는 窮極的으로 韓日間 交易의 擴大均衡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국 두나라 모두를 위해 유리한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認識을 우리 經濟人

들이 가져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親愛하는 兩國代表團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國際化 時代에 있어 두나라사이의 協力이라고 하는 것은 政治・經濟的 交流만으로 成就될 수는 없으며, 文化的 交流의 擴大를 통하여 汎國民的 次元에서의 相互理解 增進과 信賴感의 形成이 그 基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本人의 所信입니다.

이러한 理想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長期的이고도 包括的인 相互間의 國民的 노력이 필요할 것인바, 그 雰圍氣 조성을 위해 民間經濟人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本人은 韓日國交正常化 20 周年을 紀念하기 위하여 本合同委員會가 구상하고 있는 심포지움이나, 靑少年交流의 一環으로서 今年中 施行하려고 하는 大學生交換訪問計劃에 관해서도 여러분의 全幅的인 理解와 協調가 있으시기를 希圖하는 바입니다.

親愛하는 兩國代表團 여러분!

兩國關係가 成年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에 열리는 本 17 次 合同會議를 통하여 상호 격의없는 對話가 이루어짐으로써, 本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언필칭 ‘멀고도 가까웠던’ 우리 두나라 사이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맺어주는 징검다리의 役割로까지 발전하는 契機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本人의 人事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5 年 4 月 10 月

## 團 長 人 事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 日高 輝

來賓으로 이 자리에 參席하신 申秉鉉 副總理閣下, 御座 駐韓國日本大使閣下, 그리고 兩側代表團 여러분.

오늘, 日韓兩國에게 있어서 由緒 깊은 이곳 慶州 땅에서 17 회째의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을 開幕함에 즈음하여 日本側을 代表해서 人事를 드리게 된 것을 無上의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今年은 1965 年에 日韓兩國의 國交가 正常화된 以來 20 週年이라는 記念할 만한 때를 맞아 兩國官民各界 사이에서도 각각 거기에 相應하는 行事가 企劃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回顧하여 보면 이 合同委員會 會議가 發足하기 3 年前인 1966 年에 그 母體라고 할 수 있는 日韓・韓日經濟合同懇談會가 前後 3 회에 걸쳐서 開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經濟懇談會를 包含한다면 兩國의 民間經濟人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交流促進을 위해 對話를 하는 機會를 갖는 것은 이번으로 꼭 20 번째가 되므로 國交正常化 20 周年과 헛수가 들어맞는 이번 合同會議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20 年동안 貴國의 經濟發展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나위도 없이 世界各國이 다 함께 注目하여 온 터임니다. 日韓兩國 相互間에 있어서도 貿易面이라든가 或은 資本・技術의 提携, 其他의 어떤 면을 들어 보더라도 20 年前에는 到底히 想像조차 할 수 없을 정도

로 擴大・發展을 거듭하여 왔읍니다.

그동안 단 1년도 거르지 않고 日韓兩國에서 번갈아 가면서 開催되어 온 이 合同委員會 會議에서 다루어졌던 課題의 大部分은 兩國 官民의 努力에 의해서 經濟交流에 도움이 되는 方向으로 結實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貴國의 馬山輸出自由地域을 비롯한 各工業園地의 造成과 關聯하여 많은 日本企業이 入住해서 輸出擴大에 貢獻할 수 있었던 點, 貴國의 工業所有權關係法등이 整備되어 技術移轉이 順調롭게 된 點, 日本에서 貴國의 円貨債의 發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點등 모든 것이 이 合同委員會 會議에서 討議된 案件이었던 事實을 想起하게 됩니다.

물론 懸案인채로 繼續해서 남아 있는 重要한 問題가 存在하고 있는 것도 充分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그중의 큰 것의 하나인 貿易不均衡에 있어서는 貴國產品의 購買를 위해 日本으로부터 「訪韓國輸入等 促進미션」이 派遣되었고, 貴國으로부터는 輸出促進團이 來日하는 등 交易이 되풀이 되고 民間으로서도 꾸준한 努力을 거듭함으로써 改善을 向해 前進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말 할 나위도 없읍니다.

한편 日本政府로서도 數次에 걸친 市場開放措置를 더하여 特히 添補하여 둘 것은 어제 4月9日字로 發表된 對外經濟對策—最近의 決定과 今後의 政策方向—에 의해 自由貿易體制가 保護主義의 抬頭로 因해서 危機的 狀況에 놓여있는 貿易問題의 解決을 위해 “原則은 自由, 例外는 制限”을 基本으로 액션 프로그램을 策定하여 市場開放을 着實하고도 効果的으로 實施키로 되어 있으며 이 措置를 통해서,



包括的이기는 합니다만, 貴國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改善이 크게 나타  
나리라고 期待되고 있습니다.

技術移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民間에 있어서의 技術移轉은  
于先 當事者끼리의 信賴關係가 그 前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兩國民間人끼리의 對話의 場, 或은 頻繁한 交流를 通한  
信賴關係의 確立등이 不可缺한 要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意味에서도 이 合同委員會 會議에서 이처럼 多數의 兩國經濟  
人이 서로 모여서 胸襟을 털어 놓고 對話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意義있는 것인가를 새삼 痛感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再昨年初의 中曾根總理의 貴國訪問, 昨年9月の 全斗煥大統領閣下の  
訪日에 의해 兩國의 國交는 소위 「新時代」를 맞았으며, 對等한 同  
伴者의 立場에서 國際社會의 發展과 平和에 貢獻할 수 있는 相互信  
賴關係가 構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基盤 위에서 結實을 맺고 꽃을  
피우는에는 經濟面에서의 共存共榮을 위한 努力과 文化面에서의 더한  
층의 交流에 의한 兩國國民의 友好的 雰圍氣의 造成이 必要합니다.

오늘부터 3日間, 이곳 古都 慶州에서 數千年에 걸친 日韓兩國의 交  
流를 깊이 생각하고 溫古知新의 마음가짐으로 眞摯한 對話에 臨해 주  
시기를 當付합니다.

致

辭

副總理 兼 經濟企劃院長官  
申 秉 鉉

日高 團長，朴泰俊 會長을 비롯한 兩國 民間合同經濟委員會代表團 및  
內外貴賓 여러분！

오늘 이곳 유서깊은 古都 慶州에서 兩國의 指導的 經濟人들이 한  
대 모여 韓・日新時代의 새로운 協力關係를 協議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  
게 생각합니다.

本人은 또한 第5共和國 出帆直後の 第13回 合同會議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이 자리를 통해 致辭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 慶州는 新羅王國 3년의 首都로서 그  
文化의 찬란함도 자랑스럽거나와 당시 日本과 唐나라의 함께 3國 交  
流의 요충으로써 古代 東北亞地域의 文化發展에 중요한 契機를  
마련한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3國은 太平洋地域 經濟活動의 中心地  
로서 韓・日 兩國도 그 發展을 主導할 主要 同伴者가 되어야 한다는  
點에서 이 地域의 重要性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하겠습  
니다.

따라서 來日의 太平洋時代에 臨하여 이곳 慶州에 兩國의 指導的 經  
濟人들이 모이게 된 것은 그 자체로도 格別한 歷史的 意味를 지니  
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韓・日 兩國間에는 새로운 協力關係定立을 위한 活潑한 接觸과 協議가 多樣하게 進行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작년에 나카소네 首相의 公式<sup>1</sup> 訪韓에 이어 작년에는 全斗煥 大統領閣下께서 我國 國家元首로서는 兩國關係 2천년 歷史上 처음으로 貴國을 公式 訪問함으로써 兩國關係는 이제 새로운 次元의 協力關係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60년대 이후 兩國關係가 주로 經濟問題를 中心으로 制限되고 조심스런 接近이었다면 앞으로는 廣範圍한 分野에서 虛心坦懷한 接觸이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協力擴大의 必要性에 對한 共感의 폭이 넓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兩國關係가 주로 兩國間問題 中心으로 展開되었다면 앞으로는 이 地域을 包含한 國際經濟의 繁榮에 보다 많이 寄與하기 위한 同伴者的 協調關係를 더욱 擴大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韓・日 兩國이 名實相符하게 互惠的인 協力和 發展의 파트너가 되어야겠습니다. 相對國의 健全한 發展에 對한 相互理解와 認識을 높힘으로써 서로 激勵하고 支援하고 經濟力에 相應하는 責任을 기꺼이 完遂하려는 誠實한 姿勢가 必要할 것입니다.

本人은 最近 日本經濟의 활기찬 發展에 對해 그 成長의 主役들인 日本의 指導者이신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自由世界 經濟의 양기등으로서 日本 經濟의 擴大는 相互依存性이 높은 이 地域 經濟發展의 커다란 動因이며 또한 그 結果의 反映일 수 있기 때문에 이 地域 國家들은 높은 關心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今年들어 世界經濟의 展望은 昨年에 비해 밝지는 않습니다. 美國을 中心으로한 主要 先進國들의 經濟成長이 鈍化될뿐 아니라 交

易環境이 더욱 惡化되어 各國의 各種 保護主義的 措置가 더욱 늘어나는 傾向입니다.

世界經濟의 成長은 結局 各國이 比較優位에 더욱 專念함으로써 全體的인 生産性的의 增大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人爲的인 制限의 擴大는 競爭的인 規制擴大를 불러와 經濟의 效率을 크게 저해시킨다는 點에서 憂慮할만한 事態進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事態 發生을 無條件 經濟的 論理만 갖고 說得할 수는 없다는 點에서 보다 次元높은 智慧가 必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 國間의 交易에서도 均衡있는 擴大를 등한시한다면 國家間的 長期的인 交易 및 經濟協力 增進이 어려운 것이 世界的인 狀況이 되었습니다.

韓日 兩國間에는 最近 交易의 赤字幅이 줄어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擴大되고 있어 國內의 憂慮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我國의 경우 成長에 대한 對日 輸入 誘發이 다른 어느 나라 보다 크다는 點에서 이러한 一般의 憂慮가 全般的인 經濟關係에 좋지 않은 影響을 주는 것은 我國뿐만 아니라 貴國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때 雙方의 積極的인 改善 努力이 絶실히 要請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論議되고 있는 産業技術協力問題도 옛날처럼 閉鎖的인 生産體制를 指向하는 것이 아닌 한 相互協力을 擴大하는 것이 結果的으로 自國의 技術水準을 더욱 높일 수 있고 産業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는 點에서 強調되어야 하겠습니다.

本人이 듣기에 兩國 商工會議所가 中小企業間的 産業技術協力을 支援키 위해 “産業協力協議會”를 設置, 運營키로 合意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構想이 兩國 業界 全般에 더욱 擴散되어 兩國間 産業技術協力에 알찬 結實을 가져올수 있도록 倍前의 努力을 當付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經濟的 利害에 基礎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長期的으로 보아 相對國의 産業이나 技術發展을 互惠的 視角에서 支援하는 것은 매우 有益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兩國 經濟人 여러분!

작년 兩國 頂上間의 對坐이후 兩國關係는 많은 면에서 큰 進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經濟關係에서의 활발한 交流와 接觸뿐만아니라 政治人, 靑少年, 文化人들의 相互交流도 擴大되고 있습니다.

最近 我國의 言論 등에서 “日本을 알자”는 主題의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日本에서도 我國에 관한 關心이 높아지고 兩國의 過去 文化的 關係를 찾아보기 위한 觀光客의 來韓이 急増하고 있다는 記事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現象은 兩國關係를 보다 根源的으로 理解하려고 하는 努力이란 點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21世紀를 향해 보다 굳건한 協力關係를 構築하려는 兩國民의 努力을 크게 鼓舞시켜 줄 것입니다.

本人은 相對方을 알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특히 兩國의 靑少年, 學者, 中堅 公務員, 中堅 企業人들 間에도 相互 接觸 擴大를 통해 더욱 擴散되도록 여러분들의 格別한 關心을 要望하는 바입니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兩國의 指導的 經濟人들이 모인 본 會議에 對한 우리의 關心은 至大하며 많은 期待를 갖게 합니다.

아무쪼록 虛心坦懷하게 서로의 立場을 알리고 理解시킴으로써 새로운 次元에서 韓・日 新時代의 協力을 더욱 알차게 일궈나갈 수 있는 重要的 契機가 이룩되기를 祈願하면서 그 동안 兩國의 經濟協力에 盡力해준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敬意를 표하며 本人의 致辭를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祝

辭

駐韓日本國特命全權大使  
御 巫 清 尙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委員長,

日高 輝 日韓經濟委員會委員長,

그리고 이 자리에 參席하신 여러분.

오늘 第17回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開幕에 즈음하여 本人이 祝辭를 드릴 機會를 얻게 된 것을 더없이 欣快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이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는 韓日國交正常化 直後에 設立되어 이미 四를 거듭하기 열일곱번째가 되며 서울, 東京 및 其他 兩國의 都市에서 韓日兩國에 있어서 現實적으로 經濟에 從事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有益한 對話를 나누어 오셨습니다. 또한 이 委員會는 兩國의 經濟人 여러분들이 相互間에 理解와 友好를 深化시키고 發展시키는 자리로서의 定評을 確立하여 오신 모임이기도 합니다.

再昨年の 中曾根首相의 訪韓, 昨年 가을의 全斗煥大統領閣下の 訪日에 의해 日韓兩國의 關係는 새로운 時代에 접어들었습니다. 本人은 이번의 委員會 會議에서는 그와 같은 歷史的인 背景에 立脚해서 民間經濟界의 有力한 指導者들의 모임으로서 여러분이 率直한 意見을 交換하시며 또 日韓經濟協力關係가 將次 더욱 發展되기 위해 建設的인 對話를 나누시게 되리라고 確信하고 있습니다.

日韓新時代에 들어서시 兩國間의 友好親善關係는 한층더 順調롭게 進展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貿易問題, 投資問題, 技術移轉問題등 兩國間의 經濟關係를 圍繞한 懸案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며 그것은 또한 複雜多端한 것임은 否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兩國間의 全般的인 友好關係를 背景으로 하고 兩國經濟가 갖는 큰 活力에 支撐되며 또한 그것을 이끌고 계신 經濟人 여러분들의 活躍에 힘입어 兩國의 經濟關係는 오늘날 漸次 擴大되어 가고 있는 것이며 그 사이에 여러가지 問題點도 徐徐히 解決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으로 本人은 期待하고 있습니다.

第 17 回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이러한 見地에서 有益한 對話를 이루어 劃期的인 成果를 거두시도록 祈願하는 同時에 이 會議가 兩國經濟人들 相互間에 더욱 相互信賴와 友情을 增進시키게 될 것을 期待하면서 簡單하나마 本人의 祝辭를 마치겠습니다.



## 經 過 報 告

昨年 4 月, 日本國 京都에서 開催된 第 16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의 合意事項의 推進狀況 및 兩側委員會의 그동안의 活動狀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各 專門委員會의 活動狀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第 12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는 今年 2 月 서울에서,  
第 10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는 昨年 5 月 日本國 賢島에서,

第 5 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는 昨年 9 月 日本國 筑波에서,

第 3 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는 今年 3 月 東京에서 各各 開催되었습니다.

以上 4 個專門委員會의 活動에 關한 詳細한 內容은 來日 全體會議에서 各 委員會의 韓國側委員長이 報告드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第 16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 合議된 事項等의 後續措置概要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産業・技術協力の 一環인 韓國技術者の 日本研修實施經過에 있어는, 昨年 6 月 日本側의 受容機構인 受容協議會(外務省, 通産省, 運輸省, JICA, AOTS, 經團連, 日本商工會議所, 日本機械工業連合會, 日韓經濟協會等)이 發足됨으로써 研修生の 受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日韓經濟協會는 經團連等 受容協議會 멤버들의 協力を 얻어 여러 企業에 對해 韓國研修生을 받아들이도록 要請한 結果, 韓國技術者 31 名이 渡日, 日本企業 17 個社에 各各 配屬되어 昨年 11 月

26日 JICA, AOTS에서 第1回研修開講式이 舉行되었고 今年2月22日 成功裡에 研修를 마쳤습니다. 第2回研修生 派遣은 現在 兩國政府間에서 折衝中에 있습니다.

다음, 貿易의 擴大均衡을 위한 努力에 있어서는 昨年7月2일부터 7일까지 韓國側輸出促進團 4個班 39名이 東京, 橫濱, 札幌, 仙台, 北九州, 廣島, 金澤, 新潟 등 日本의 8個都市를 巡訪하면서 韓國經濟說明會와 더불어 輸出促進活動을 展開하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 昨年10月5일부터 12일까지는 總8個그룹 144名으로 構成된 日本側의 訪韓國輸入等促進미션이 訪韓하여 SITRA'84 參加企業을 비롯한 483個 韓國企業과 서울 및 釜山에서 都合 1,132件의 商談을 進行시켰습니다.

또한 그 後續措置로서 同商談에 參加했던 兩側企業을 中心으로 市場協議會를 構成키로 合意된 바에 따라 昨年12月21日에는 韓日市場協議會가, 今年2月7日에는 日韓市場協議會가 各各 結成되었습니다.

한편 日本側으로 부터 要請이 있었던 在韓日本商社의 스테이 터스, 認定手數料, 駐在員의 所得稅查定, 廣告費에 對한 關稅 課稅, 輸入多邊化 制度 등 問題에 關해서는 韓國側에서 加一層의 緩和 내지 改善이 이루어지도록 韓國政府에 그 뜻을 傳達하였으며, 日本側도 韓國側이 要望한 關稅, 非關稅上의 緩和措置等에 關해 日本政府當局에 傳達했습니다.

그리고 海運協力에 關한 日本側 要望事項도 韓國側關係機關에 傳達되었습니다.

그리고 韓日國交正常化 20周年記念行事와 留學生의 보다 많은 交換에 關한 案件은 이를 한데 묶어 于先 靑少年交流의 形態로 이를 實現키 위한 作業이 進行中에 있습니다.

끝으로 各 專門委員會가 다루고 있는 分野는 各 委員會가 合同會議에서 報告하며 本 會議에서 審議 採擇됨으로 合同會議에서 二重으로 議題로 올리지 않고 共同聲明에서 이를 反映시키기로 兩側事務局이 合意를 하였습니다.

以上으로 經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議 題

### 基調演説

韓國側：韓・日交易擴大와 太平洋時代

日本側：2000 年代의 韓日經濟協力の 方向

### 說 明

韓國의 外國人投資政策 및 制度……財務部 投資振興課長 金永燮

### 各委員會 合同會議 報告

- (1) 貿易擴大均衡委員會
- (2) 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 (3)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 (4)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 議 題

- (1) 經濟協力
  - 日本側의 投資調查團 派韓
- (2) 技術協力
  - 技術移轉 斡旋의 活性化
  - 技能工 研修의 擴大
- (3) 貿易增進
  - 韓國의 輸出促進團 日本派遣
- (4) 海運協力

(5) 韓日國交 正常化 20 周年 行事

i) 심포자옴開催

- 假題 “兩國經濟交流의 實績과 將來”

ii) 靑少年交流

- 兩國學生의 財界支援에 의한 交換訪問

# 韓國側代表團名單

(가나다順)

	姓	名	團 會	體 社	職 位	團體 / 會社名
顧問	柳	琦	會		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RYU	KI JUNG				
"	鄭	壽	會		長	大韓商工會議所
	CHUNG	SOO CHANG				
"	鄭	周	會		長	全國經濟人聯合會
	CHUNG	JU YUNG				
團長	朴	泰	會		長	韓日經濟協會
	PARK	TAE JOON	會		長	浦項綜合製鐵(株)
副團長	金	宇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KIM	WOO CHOONG	會		長	(株) 大 宇
"	朴	大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PARK	TAI CHIN	會		長	中山綜合開發(株)
"	朴	龍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PARK	YONG HAK	會		長	(株) 大 農
"	李	孟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LEE	MAENG KEE	社		長	大韓海運(株)
"	鄭	寅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CHUNG	IN WOOK	會		長	江原產業(株)
副團長	趙	重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CHO	CHOONG HOON	會		長	(株)大韓航空
"	許	愼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HUH	SHIN KU	社		長	(株)金星社
團員	姜	信	社		長	(株) 三 一
	KANG	SHIN WOO				
"	高	應	會		長	韓國機械工業協同組合聯合會
	KOH	EUNG CHIN				

團 員	姓 名		團 體	團 體 / 會 社 名
			會 社 職 位	
	郭 定 鎰		會 長	韓國機械工業振興會
	KWAK JUNG HYUN			
"	郭 厚 燮		社 長	(株)吳川機械工業
	KWAK HOO SUP			
"	權 達 顏		社 長	京畿化學工業(株)
	KWON DAL AN			
"	權 載 斗		副 社 長	高麗製鋼(株)
	KWON JAE DOO			
"	金 啓 鎬		理 事	中小企業振興公團
	KIM KE HO			
"	金 基 煥		部 長	韓國外換銀行
	KIM KI WHAN			
"	金 斗 河		社 長	三華化成(株)
	KIM DOO HA			
"	金 允 燾		會 長	三樂物產(株)
	KIM YOON DO			
"	金 仁 得		會 長	(株)碧 山
	KIM IN DEUK			
"	金 鍾 大		會 長	大田皮革工業(株)
	KIM CHONG DAI			
"	金 鎮 河		會 長	裕東企業(株)
	KIM JIN HA			
"	金 昌 圭		社 長	湖南에틸렌(株)
	KIM CHANG KYOO			
"	金 昌 星		社 長	全 紡 (株)
	KIM CHANG SUNG			
"	金 昌 熙		理 事	삼표食品工業(株)
	KIM CHANG HEE			
"	金 泓 殖		社 長	(株)金福耐
	KIM HONG SHIK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社名
團 員	羅 昌 洙	NA GHANG SOO	專 務	韓國機械工業振興會
"	盧 仁 煥	ROH IN HWAN	副 會 長	全國經濟人聯合會
"	閔 錫 源	MIN SUK WON	會 長	正友開發(株)
"	朴 魯 聖	PARK RO SUNG	社 長	(株)元伸實業
"	朴 聖 相	PARK SUNG SANG	銀 行 長	韓國輸出入銀行
"	朴 銖 得	PARK SU DEUK	副 社 長	(株)振盛레미컨
"	朴 辰 熙	PARK JIN HI	社 長	慶北礦油(株)
"	白 文	PAIK MOON	社 長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	徐 廷 翰	SUH CHUNG HAN	社 長	韓國合金鐵(株)
"	徐 泰 源	SUH TAE WON	社 長	(株)白 羊
"	孫 烈 鎬	SOHN YUL HO	社 長	東洋錫鋅工業(株)
"	沈 遠 澤	SHIM WON TAEK	社 長	大韓投資金融(株)
"	禹 榮 泰	WOO YOUNG TAE	理 事	三星物產(株)
"	柳 續 佑	RYU CHAN U	會 長	豐山金屬工業(株)
"	李 尙 秀	LEE SANG SOO	副 會 長	韓日經濟協會



團 員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體 / 會社名
	李 宜 基	LEE SUN KI	副 會 長	韓國貿易協會	
"	李 昇 柱	LEE SEUNG JOO	會 長	韓國染色工業協同組合聯合會	
"	李 源 達	LEE WON DAL	副 會 長	在日韓國人本國投資協會	
"	李 在 熹	LEE JAE HIE	專 務	東部製鋼(株)	
"	李 柱 範	LEE CHOU BOM	社 長	(株) 雙 龍	
"	李 竣 鎔	LEE JOON YONG	社 長	大林產業(株)	
"	李 昌 雨	LEE CHANG WOO	會 長	(株)釜山파이프	
"	李 春 林	LEE CHOON LIM	會 長	現代重工業(株)	
"	李 孝 益	LEE HYO ICK	社 長	三益樂器製造(株)	
"	李 勳 東	LEE HOON DONG	社 長	朝鮮耐火化學工業(株)	
"	李 熙 健	LEE HEE KUN	會 長	新韓銀行	
"	蔣 慶 煥	JANG KYOUNG HWAN	副 社 長	三星重工業(株)	
"	張 炳 贊	CHANG BYUNG CHAN	社 長	利川電機工業(株)	
"	全 九 百	JEON KOO BAIK	會 長	(株)製鐵化學	
"	全 在 球	CHUN JAE KU	顧 問	大韓浚湫公社	

團 員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曹 圭 河	CHO KYU HA	常 務		全國經濟人聯合會
"	趙 碩	CHO SEOK	副 社 長	(株)	三發社
"	趙 鼎 九	CHO JUNG KOO	會 長		三扶土建(株)
"	崔 光 政	CHOI KWANG JUNG	副 會 長		韓國電子工業振興會
"	崔 善 來	CHOE SUN RAY	顧 問		汎韓火災海上保險(株)
"	崔 在 洙	CHOI JAE SOO	專 務		韓國船洲協會
"	韓 在 烈	HAHN JAE YEUL	副 會 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許 平 萬	HUR PYUNG MAHN	社 長		東部產業(株)
"	玄 湖 仲	HYUN HOH JOONG	部 長		韓國電子工業振興會
"	洪 寬 植	HONG KWAN SIK	專 務		大韓船洲(株)
"	申 德 鉉	SHIN DUK HYUN	理 事		韓日經濟協會
"	金 昌 鎭	KIM CHANG JIN	部 長		韓國貿易協會
"	朴 尙 夏	PARK SANG HA	課 長		大韓商工會議所
"	朴 正 雄	PARK JUNG WOONG	部 長		全國經濟人聯合會
"	柳 義 錫	LEW EUE SUCK	部 長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姓 名	團 體 會社職位	團 體 / 會 社 名
事務局	洪 潤 植 HONG YOON SHIK	企 劃 委 員	韓日經濟協會
//	河 圭 俊 HA KYU JOON	部 長	韓日經濟協會
//	鄭 會 元 CHUNG HOY WON	課 長	韓國貿易協會
//	許 南 整 HUH NAM JUNG	課 長	韓日經濟協會

## 日 本 代 表 団 名 簿

	姓	名	会 社 名 / 職 位
顧問	稲 山 INAYAMA	嘉 寛 YOSHIHIRO	社団法人経済団体連合会会長 日韓経済協会顧問
顧問	五 島 GOTO	昇 NOBORU	日本商工会議所会頭 東京急行電鉄(株)代表取締役社長 日韓経済協会顧問
顧問	赤 沢 AKAZAWA	璋 一 SHOICHI	日本貿易振興会理事長 日韓経済協会顧問
団 長	日 高 HIDAKA	輝 TERU	日韓経済協会会長 山一証券(株)相談役
副団長	植 田 UEDA	三 男 MITSUO	日商岩井(株)代表取締役会長
副団長	梅 田 UMEDA	善 司 ZENJI	川崎重工業(株)会長
副団長	杉 浦 SUGIURA	敏 介 BINSUKE	(株)日本長期信用銀行代表取締役会長
団 員	植 谷 UETANI	久 三 HISAMITSU	山一証券(株)会長
"	富 永 TOMINAGA	鉄 男 TETSUO	(株)東食取締役会長
"	秋 田 AKITA	兼 三 KENZO	(株)第一HOTEL 取締役社長
"	鉄 屋 TETSUYA	一 夫 ICHIO	伊藤忠商事(株)取締役副社長
"	下 川 SHIMOKAWA	澄 一 YOICHI	石川島播磨重工業(株)代表取締役 副社長
"	松 田 MATSUDA	好 生 YOSHIO	NICHIMEN (株) 取締役副社長

	姓	名	会 社 名 / 職 位
団 員	西 川	登	豊田通商(株)副社長
	NISHIKAWA	NOBORU	
"	山 形	栄 治	新日本製鉄(株)専務取締役
	YAMAGATA	EIJI	
"	青 木	恒 也	(株)神戸製鋼所常務取締役機械事業 部長
	AOKI	TSUNEYA	
"	西 尾	知	丸紅(株)専務取締役
	NISHIO	SATORU	
"	井 上	威	住友商事(株)専務取締役
	INOUE	TAKESHI	
"	三 好	正 也	社団法人経済団体連合会専務理事
	MIYOSHI	MASAYA	
"	京 本	善 治	社団法人日本貿易会専務理事
	KYOMOTO	ZENJI	
"	宗 重	章	三菱物産(株)代表取締役常務取締役 名古屋支店長
	MUNESHIGE	AKIRA	
"	山 田	泰 三	三菱商事(株)常務取締役
	YAMADA	TAIZO	
"	武 藤	称一郎	(株)TOMEN 常務取締役
	MUTO	SHOICHIRO	
"	大 永	勇 作	富士通(株)常務取締役
	ONAGA	YUSAKU	
"	竹 内	宏	(株)日本長期信用銀行常務取締役 調査部長
	TAKEUCHI	HIROSHI	
"	矢 作	恭 藏	三菱重工業(株)取締役 機械事業本部副事業本部長
	YAHAGI	KYOOZOO	
"	福 田	稔	富士電機(株)監査役
	FUKUDA	MINORU	
"	三 上	良 造	日本船主協会常務理事
	MIKAMI	RYOZO	

	姓	名	会 社 名 / 職 位
団 員	加 藤 KATO	正 躬 MASAMI	日本輸出入銀行理事
"	白 戸 SHIRATO	健 TAKESHI	三井造船㈱理事動力 ENGINEERING 事業部長
"	中 村 NAKAMURA	富 郎 TOMIRO	三菱商事㈱取締役 SEOUL 支店長
"	山 田 YAMADA	実 MINORU	丸紅㈱取締役 SEOUL 支店長
"	永 利 NAGATOSHI	久 志 HISASHI	東京急行電鉄㈱取締役政策室長
"	上野山 UENOHAMA	泰 史 YASUFUMI	住友重機械工業㈱企画室部長
"	山 本 YAMAMOTO	利 久 TOSHIHISA	山一証券㈱国際本部付部長
"	石 井 ISHII	満 MITSURU	日本商工会議所経済協力部長
"	古 沢 FURUSAWA	実 MINORU	社団法人日本貿易会企画部長
"	染 谷 SOMEYA	真 一 SHINICHI	川崎重工業㈱営業総括室部長
"	榊 SAKAKI	美 温 YOSHITADA	石川島播磨重工業㈱輸出営業本部 国際業務 GROUP 部長
"	榊 原 SAKAKIBARA	三 郎 SABURO	日商岩井㈱海外業務部 ASIA 大洋州室長
"	鎌 田 KAMADA	睦 男 MUTSUO	大阪商船三井船舶㈱定航二部副 部長
"	今 井 IMAI	房三郎 FUSASABURO	伊藤忠商事㈱海外企画統轄部部長 代行
"	山 村 YAMAMURA	和 臣 KAZUOMI	国際電信電話㈱ SEOUL 事務所長

	姓	名	会 社 名 / 職 位
団 員	中 村	紹 男	韓国富士通(株)社長
	NAKAMURA	TSUGUO	
"	山 村	博 一	東京銀行(株)釜山支店長
	YAMAMURA	HIROICHI	
"	高 橋	栄 一	日韓経済協会専務理事代行
	TAKAKASHI	EIICHI	
随 員	久 保	恭 一	東京急行電鉄(株)政策室主査
	KUBO	KYOICHI	
"	釜 池	徹	(株)日本長期信用銀行国際金融部 副参事役
	KAMA I KE	TOORU	
"	久保木	一 政	三菱商事(株)業務部 ASIA TEAM 主事
	KUBOKI	KAZUMASA	
"	加 治	輝 美	三井物産(株) SEOUL 支店長
	KAJ I	TERUMI	
"	日 高	正 博	石川島播磨重工業(株) SEOUL 連絡 事務所長
	HIDAKA	MASAHIRO	
"	柴 崎	安 信	(株)第一 HOTEL 秘書室長
	SHIBAZAKI	YASUNOBU	
"	島 田	敏 生	伊藤忠商事(株) SEOUL 支店長
	SHIMADA	TOSHIO	
"	尾 見	誠 一	住友商事(株) SEOUL 支店長
	OMI	SEIICHI	
"	片 谷	齊	日商岩井(株) SEOUL 支店長
	KATAYA	HITOSHI	
"	鳩 貝	壽 夫	NICHIMEN(株) SEOUL 支店長
	HATOGAI	TOSHIO	
"	田 中	精	山一証券(株) SEOUL 事務所所長
	TANAKA	ISAMU	
"	岡 山	正 一	日本商工会議所 SEOUL 事務所所長
	OKAYAMA	SHOICHI	

	姓	名	会 社 名 / 職 位
随 員	佐 藤 SATO	勉 TSUTOMU	丸紅㈱ SEOUL 支店企画室長
"	筒 井 TUTUI	伸 夫 NOBUO	日本貿易振興会秘書室長
"	安 達 ADACHI	哲 夫 TETSUO	㈱日本長期信用銀行調査部調査役
"	小 渕 KOBUCHI	修 二 SHUJI	山一証券㈱秘書役
"	瓜 生 URYU	喜 藏 KIZO	東京急行電鉄㈱秘書
事務局	中 島 NAKAJIMA	慶之助 KEINOSUKE	日韓経済協会参与
"	林 HAYASHI	芳 典 YOSHINORI	日韓経済協会専務理事付
"	木 村 KIMURA	宏 和 HIROKAZU	日韓経済協会調査弘報室長
"	阿 部 ABE	好 秀 YOSHIHIDE	日韓経済協会経理課長
"	槇 野 MAKINO	浩 HIROSHI	社団法人経済団体連合会経済協力部



〈基調演說〉

## 韓日交易擴大와 太平洋時代

韓國輸出入銀行  
銀行長 朴聖相

御巫大使，日高團長，朴泰俊團長！ 그리고 兩國 代表團 및 內外貴  
賓여러분！

本人은 먼저 第 17 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를 위해  
이곳 慶州에까지 먼길을 왕림해주신 日本 代表團 여러분을 衷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 韓日 民間經濟界를  
代表하는 指導的 位置에 계신 經濟人 여러분께 兩國間의 經濟交流  
擴大를 위한 本人의 平素 생각을 말씀드릴 機會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感謝드리는 바입니다.

새삼 강조할 必要도 없이 日本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입  
니다. 韓國과 日本은〈가깝다는 理由 하나만으로도 서로에게 소중한  
存在〉라는 사실을 本人은 자주 상기해 봅니다. 昨年 10 月の 金斗煥  
大統領閣下の 日本訪問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韓國과 日本은 〈언제까  
지나 이웃으로 태어나고 또 이웃으로 살아가야 하는〉宿命的인 因緣  
의 關係에 있으며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 松茂  
柏悅 )는 옛말에서처럼 韓國과 日本의 두나라는 善隣友好的 同伴者로  
서 오늘을 살고 있고 또 내일을 期約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특히 가장  
樂觀的인 韓・日關係를 점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韓・日 두나라간의 새로운 時代는 이웃에 대한 善意의 關心과 을  
바른 理解의 바탕 위에서만 開花될 수 있다는 것이 本人뿐만 아니

라 여기에 모이신 兩國經濟指導者 여러분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經濟交流의 擴大, 增進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太平洋沿岸國 특히 儒敎文化圈의 經濟發展은 앞으로 이 地域이 世界經濟發展의 中心役割을 할것이고 이 地域 經濟發展을 通하여 人類文化의 次元높은 新時代를 열 可能性을 갖고 있다고 主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文化圈을 形成할 可能性을 지녔다는 것은 이 地域 儒敎文化圈의 經濟發展이 世界開發途上國의 經濟發展보다 앞질러가고 있다는 重要한 事實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銘心해야 할 것입니다.

經濟發展의 範疇를 따지면 日本은 先進工業國에 屬하고 韓國・臺灣・香港・싱가폴・말레이시아 등은 後進開發工業國이라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 본다면 왜 世界가 太平洋沿岸 儒敎圈이 앞으로世界經濟發展을 主導할 것으로 보는가를 음미해볼 必要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日本만이 現在와 같은 急速한 그리고 뛰어난 經濟發展을 거듭하고 있으나, 韓國이나 臺灣, 香港 그리고 싱가포르 등 太平洋의 餘他の 開發途上國들이 옛날의 못살던 後進國들로 남아 있다고 假定했을 때 과연 世界가 오늘의 日本을 經濟發展만으로 太平洋沿岸 儒敎文化圈이 앞으로 世界經濟發展을 主導할 것이라고 評價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本人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日本 뿐만 아니라 日本을 中心으로한 韓國을 包含한 이들 太平洋沿岸國들의 經濟發展이 世界經濟發展을 主導하게 되도록 하

려면 日本만 發展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아마 한분도 안계시리라 믿습니다. 本人은 그러한 뜻에서 오늘에 始作된 것이 아닌 이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모임이 世界文明을 主導하는 經濟發展歷史를 創造하는 會議가 되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機會가 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韓日兩國간의 懸案問題인 對日 貿易逆調의 深化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現象인 同時에 이것 또한 兩國이 서로 協力하고 또 各自가 그 逆調縮少와 交易增進을 위해 努力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貿易不均衡으로 象徵되어온 그 동안의 韓・日經濟의 不調和는 經濟發展過程의 差異에 따른 보다 構造的인 問題라는 點에서 이를 인위적으로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相互理解와 經濟協力을 하겠다는 努力을 바탕으로 서로가 讓步, 協助해 나가는 過程에서만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하겠읍니다. 또 經濟問題에 관한 한, 兩國간의 交易은 交易 双方의 利益에 貢獻하는 것이며 따라서 어느 한쪽만의 利益이 強調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關聯하여 韓・日 兩國간의 經濟交流의 擴大, 增進을 위한 本人의 평소 생각을 간추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4年中 韓國의 對日 輸出은 46億200萬弗, 輸入은 76億4,000萬弗로 年中 30億3,800萬弗의 貿易赤字를 記錄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6年の 國交正常化 以後 韓國의 對日輸出 總額은 328億9,000萬弗, 輸入 總額은 627億6,800萬弗에 이르러 84年末까지의 貿易赤字額은 300億弗에 달했습니다. 이는 韓國의 對外債務總額 432億弗의 約70%에 該

當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韓國의 對外債務의 增加는 日本으로 부터의 輸入超過 때문에 진 빚이 그 大宗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입니다.

한편 84年中 臺灣은 日本에 32億 400萬弗을 輸出하고 59億8,600萬弗을 輸入하여 27億 8,200萬弗의 赤字를 記錄했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17億 7,500萬弗을 輸出하고 46億 1,200萬弗을 輸入하여 28億 3,700萬弗의 赤字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對日 貿易赤字가 太平洋地域의 開發途上國들이 정도의 差는 있으나 한결같이 對日 貿易赤字를 보이고 있다는 事實을 볼 때 單純한 表面的 貿易量의 對比에서 오는 數字만 가지고 一方的 批判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좀더 깊이 있게 分析해볼 現實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數字分析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太平洋沿岸의 經濟發展主導國들이 한결같이 對日貿易赤字 現象을 보이고 있는 理由가 日本의 技術發展이 越等 앞서있기 때문에 機械와 部品 그리고 素材등을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에 依存하여 組立하는 自國의 國內産業의 發展形態와 이를 바탕으로 輸出을 增加시켜 올 수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볼때 이는 어느程度의 貿易逆調는 當然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것도 또한 事實입니다.

그렇다고 韓國의 對外債務總額의 約 70 %가 對日貿易赤字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太平洋沿岸國의 共同發展을 위해서 바람직한 現狀인가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느낍니다.

果然 이와같은 貿易逆調가 單純한 輸入依存的 産業構造에서 不可

避하게 비롯된 것인가 또는 日本의 市場이 現在 美國議會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듯이 市場開放으로 相互主義 交易原則을 그대로 지키지 못 한데서 緣由하는 것인지를 再考해 보아야 할 것으로 느낍니다.

自由中國에 對한 日本의 輸出은 59 億弗로 同國의 輸出額이 韓國과 다같이 300 億弗 水準인데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의 對日輸入이 自由中國보다 約 20 億弗이나 많다는 것은 그 理由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理由는 우리나라 機械工業과 部品工業 그리고 素材工業에서 自由中國보다 對日輸入依存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는 解釋이 可能할 지 모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가 만들지 못하여 輸入해야 하는 部品과 素材, 그리고 機械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점은 여기에 제신 우리나라 經濟人 여러분의 責任이 莫重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이곳 慶州에 오신 日本의 經濟人 여러분에게도 좀더 많은 技術協調를 通해서 또는 合作投資를 通해서 우리가 技術不足으로 國產化가 안되어 日本으로부터 또는 餘他工業國으로부터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機械・部品・素材의 國產化가 可能하도록 協力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日本의 經濟人 여러분 가운데 技術移轉을 通해서 韓國의 部品産業, 機械工業 그리고 素材工業이 發展하여 日本의 對韓國 輸出市場이 韓國의 國產化 때문에 줄어들고 또한 強力한 競爭國으로 浮上함으로써 世界市場에서 日本의 競爭國으로서 日本經濟에 不利益을 줄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으로 느낍니다. 실

제로 그렇게 公共然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年初 우리나라가 아직 經濟發展의 기틀을 잡지 못하고 貧國의 굴레 속에 있을 때의 對日輸入額은 70百萬弗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現在 韓國은 日本으로부터 76億弗을 輸入하는 나라로 成長했습니다. 즉 韓國은 經濟가 發展하므로서 日本으로서는 韓國이 110倍의 큰 市場으로 發展했고 日本輸出의 約5%를 점하는 市場이 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韓國의 눈부신 經濟發展이 日本의 輸出市場化를 오히려 促進해온 것입니다. 日本의 對韓國 輸出이 減少하리라고 생각하면 이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韓國의 經濟發展은 日本의 產業發展에 따른 不斷한 技術移轉으로 韓國이 만들지 못했던 시멘트, 肥料, 製鐵, 自動車, 오토바이, 라디오, TV, VTR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分野의 끊임없는 技術移轉으로 이루어진 產業分野가 너무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日本과 美國등 先進諸國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이 그 형태가 어떻든 간에 韓國의 產業發展 즉 工業化의 促進으로 韓國經濟가 發展해왔고 韓國經濟가 發展하고 있기 때문에 韓日間, 韓美間の 交易이 增進해 왔다는 점을 回顧해 본다면 日本으로부터의 技術移轉이 韓國의 國際競爭力強化로 日本이 損失을 입는다는 생각은 短見이라고 할 것입니다.

日本의 1965年度 總輸出額이 85億弗에 불과했으나 20年後인 지금은 1,500億弗을 넘고 있습니다. 20年 동안에 18倍를 增加시킨 日本의 輸出伸張勢에 비추어 볼때 韓國의 產業發展에 따른 經濟發展이 日本의 輸出額成長에 惡影響을 미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

히리 그와는 반대로 韓國이 日本의 輸出市場의 5 %를 점하는 큰 市場化 하도록 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造船과 같은 一部分野의 日本과의 競爭과 製鐵工業의 一部分野 등 微視的으로 본다면 韓國의 技術發展을 통한 產業發展이 競爭을 誘發한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日本의 紡織工業이 1965 年까지만 보아도 日本의 輸出產業으로서의 重要的 位置를 점했으나 이제는 그것 없이도 輸出 增加勢는 어느 先進國보다 越等히 앞서고 있습니다.

日本은 輸出構造의 不斷한 變化를 통하여 低賃金에 依存하던 輸出品은 그 成長勢가 鈍化되고 低技術製品의 競爭力이 弱化되고 高度 技術發展과 不斷한 研究開發로 世界の 產業發展에 “輕薄短小”라는 새로운 概念을 創出해서 輸出品의 構造를 바꾸어온 日本의 過去趨勢는 앞으로도 持續될 것으로 보입니다. 先先進國 할 것없이 經濟發展을 정지시킨다면 모르되 產業發展을 통하여 產業이 그 나라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變化하는 이상 產業構造變化에 따른 產業間의 摩擦을 大局的인 見地에서 收容하는 넓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랜 經濟發展 經驗을 가지신 兩國經濟指導者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大局的 產業構造變化의 必然性이라는 立場에서 본다면 日本의 經濟協力으로 日本에서 또는 다른 先進工業國에서 輸入하고 있는 機械類와 部品 그리고 素材들을 韓國에서 國產化하는 速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韓國의 經濟發展速度는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韓國人の 所得이 높아짐에 따른 內需은 오히려 증가하여 對日輸入은 減少커녕 過去趨勢대로 擴大될 것이며 產業의 高度化에 따라 보다 높은 日本 技術商品의 需要增加를 加速化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事實

은 過去의 日本의 積極的이고 友好的인 技術協力 그리고 經濟協력이 韓國經濟發展에 기여해왔고 따라서 韓國이 自由中國보다도 日本의 輸出市場化되고 있다는 점을 想起한다면 現在 日本에서 알고 있는 韓國에 대한 競爭國이라는 警戒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만일 英國이 自國의 産業革命을 프랑스나 美國, 西獨등에 傳播되지 못하게 技術移轉을 閉鎖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西歐文明이 그리고 오늘날의 世界人類의 生活水準이 今日과 같이 發展했을 것인가 疑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英國의 發展된 技術이 프랑스와 西獨 그리고 美國으로 傳播됨으로써 英國은 더욱 많은 輸出市場을 確保했고 自國의 發展된 技術을 傳播시킴으로서 그 나라의 産業이 發展하고 發展된 産業國家와의 交易量이 增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世界交易量의 增加와 이에 따른 經濟發展, 所得增加가 人類文化의 前例없는 高度化를 이루게 해 왔던 것임을 想起할 때 交易의 重要性은 아무리 強調되어도 過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世界交易量의 70 %가 先進工業國과의 交易量입니다. 先進國과 後進國 사이의 交易量은 25 %에 不過합니다. 이 統計가 말해주는 것은 産業이 發展해야 輸出市場이 開拓될수 있는 것이지 産業이 發展하지 못하면 輸出市場이 開拓될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太平洋 沿岸國인 韓國을 위시한 臺灣, 홍콩, 싱가포르등의 産業이 日本의 技術移轉 忌避로 發展하지 못했다면 日本은 250 億弗의 이들 나라에 對한 輸出市場이 發展하지 못했을 것이고 韓國에 對한 輸出이 79 億弗에 達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日本이 韓國에 多くの 輸出을 願한다면 이런 뜻에서 日本은 韓國經濟發展을 위하여 機械工業 部品工業 素材工業의 國產化率을 높히는데 必要한 技術移轉과 合作投資에 積極적으로 協力해서 韓國의 產業發展과 經濟發展이 促進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곳 新羅의 古都慶州에 會議參加次 오신 여러분은 日本사람이라든지 韓國사람이라든 國境을 超越한 人間關係가 長久한 時間을 通한 友情關係로 發展시켜온 사람 對 사람의 모임이라든 느낌을 갖게 합니다.

人間은 生活水準이 어느程度 비슷해야 이웃끼리 아침人事도 나누고 서로의 집에 請해서 茶한잔 나누든지 食事라도 같이 하면서 歡談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韓國이 北韓과 같이 後進國으로 남아있고 가난하다면 日本에서 오신 여러분은 가난한 이웃 韓國에 오기조차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經濟協力에 힘입어 가난한 이웃이 아니고 이제 아침人事를 즐겁게 나누고 茶라도 합시다”라고 서로가 자기집에 請할수 있는 즐거운 이웃손님이 된것입니다. 이제와서 競爭國이니 警戒國이니 해서 韓國의 產業發展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즐거운 이웃이 될수도 없고 그렇게해서 不便한 關係가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머지 않아 서울과 東京사이에 Shuttle air bus가 運行되고 저녁食事招待에 東京에서 서울로 午後에 와서 그다음 午前에 東京勤務處에 出勤하는 時代를 여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英國과 프랑스, 西獨은 이제 그와같은 友邦으로 發展하여 自由로운 經濟交流를 通해서 所得水準이 平準化되고 EC域內交易은 經濟協力을 바탕으로 크게 増加했습니다. EC域內交易이 共同市場形成後에 크게 增

加한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우리 韓・日兩國國民은 EC國民들과 같이 살기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것이고 꼭 그렇게 되리라고 나는 믿고있습니다. 그 理由는 簡單합니다. 사람은 社交的이고 自由로이 旅行하고 사귀고 즐겁게 지내기를 항상 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人間의 慾望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또 막아서도 안될것입니다.

太平洋時代를 여는 同伴者로서 韓國과 日本은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各分野別 相互協力을 通해서 살기좋은 世上을 만들고 共產侵略 野慾에서 비롯될지도 모르는 暗黑世界의 危險으로 부터 自由 民主主義를 守護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基調演說〉

## 2000 年代의 日韓經濟協力の 方向

日本長期信用銀行  
會長 杉浦敏介

### 1. 序 言

방금 紹介를 받은 日本長期信用銀行의 杉浦을사다.

오늘은 日本側の 基調演說을 맡게 되어 眞心으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于先 시작에 앞서 日韓・韓日國交正常化 20 周年이 되는 해의 이 記念할만한 第 17 回 合同會議가 朴泰俊團長, 日高輝團長 兩國代表團의 顧問여러분 그리고 團員 여러분들의 相互理解와 協力으로 이처럼 盛大하게 舉行하게 된데 對해 기뻐하는 바입니다.

오늘 本人에게 주어진 題마는 「2000 年代의 日韓經濟協力の 方向」입니다마는 이 問題를 놓고 兩國經濟界의 首腦 여러분들께서 相互理解를 深化시키는 것은, 國交正常化 20 周年을 契機로 兩國間 經濟協力關係를 더한층 緊密化시킴으로써 兩國經濟의 새로운 發展을 꾀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重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問題는 長期構想研究專門委員會에서 좀더 깊이 있는 共同研究가 推進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그 點과 關聯해서 本人의 所感의 一端을 말씀드림으로써 조금이나마 參考가 되신다면 多幸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 2. 새 時代를 맞는 日韓經濟關係

돌이켜보건대 過去 20 年間の 兩國關係는 迂餘曲折과 苦難이 겹친 길을 걸어 왔다고 생각되는데, 最近에 와서야 비로소 兩國關係者들의 끊임없는 努力의 成果가 큰 結實을 가져와 새로운 飛躍을 向한 跳躍台에 到達하였다고 하는 것이 本人의 實感입니다.

물론 아직도 두나라 사이에는 貿易不均衡問題, 技術交流問題등 解決하지 않으면 아니 될 많은 難題가 있습니다.

円滑한 經濟連營을 위해서 이러한 問題들에 對해서는 適切한 對應策이 必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만 偶然치 않게도 두나라 經濟의 發展段階의 差異에서 온 問題도 있으며 또 一朝一夕에는 解決이 어려운 問題가 있는 것도 事實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最近 數年間 두나라의 經濟關係는 그러한 難題들을 內包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貿易, 資本, 技術의 交流등 모든 面에 있어서 從前과는 比較가 안될 빠른 速度로 擴大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參席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비롯한 關係者 여러분들께서 努力하신 德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치고 있는 基本은 이제까지의 努力과 實績을 쌓아 올리는 사이에 相互間에 培養된 信賴感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點 昨年の 全斗煥大統領閣下の 訪日은 자못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閣下の 訪日이 두나라 國民의 마음에 點火시킨 “融和”라고 할까 서로 理解하고 信賴하는 마음을 크게 促進시킨 効果는 無限한 것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 本人이 兩國關係는 새로운 飛躍을 向한 跳躍台에 서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相互理解와 信賴의 紐帶가 두나라 사이의 어떤 難題라도 能히 克服할 수 있을 程度로 強化되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 3. 2000 年代의 日韓經濟關係

그러한 實感에서 本人은 「2000 年代의 日韓經濟關係」에 對해서 큰 期待를 걸고 있습니다. 緊密度를 深化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 形態는 “相互補完的”이라 할까, 혹은 “競爭的協調關係”라 할까, 여하튼 보다 훌륭한 發展的인 것이 되리라고 豫想됩니다. 그러한 關係가 나아가서는 相互間에 輸出市場의 擴大와 國際競爭力の 向上을 가져 오며 兩國經濟의 繁榮에 더한층 寄與하리라는 것은 再言을 必要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良好한 關係를 構築해 나가기 위해서는 두나라 모두 自國의 健全하고도 安定的인 經濟發展을 實現시켜 나가는 것이 그 前提가 됩니다만 그 點 저희들은 貴國經濟의 앞으로의 展開가 從前에 比해 더욱 눈부시리라고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貴國經濟는 「漢江의 奇蹟」이라 불리우는 高度成長을 이룩한 뒤에 第2次 石油波動 以後 一時的인 困難을 겪기도 하였읍니다만 훌륭한 回復力을 發揮하여 또다시 高度成長과 物價安定을 이룩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까지 蓄積한 生産基盤과 人的資源의 活用으로 輸出 構造의 高度化등을 지렛대로 삼아 높은 成長을 持續함으로써 今年度 國政演說에서 大統領께서 提示하신대로 西紀 2000 年에는,

- GNP 2,500 億달러
- 1人當 GNP 5,000 달러

라는 目標을 期於코 達成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한편 日本의 經濟는 人口構成의 急速한 高齡化時代를 맞는 가운데 소위 成熟化段階에 접어들고 있으며 앞날이 樂觀을 不許하는 狀況임 나 다만 우리들 經濟界로서도 萬全의 努力을 기우리고 있으므로 貴國과 손을 잡고 希望에 넘치는 2000年代를 맞을 수 있으리라 確信하고 있습니다.

#### 4. 向後の 日韓經濟協力을 생각하는 포인트

이러한 展望을 前提로 向後の 日韓經濟協力の 姿勢를 생각함에 있어서 不可缺한 포인트로서 다음 두가지 點을 들고자 합니다.

첫째로 兩國의 民間次元에서의 經濟協力關係를 더욱 廣範하고도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두나라가 되도록 忌憚없이 率直한 意見을 내놓고 實現 可能한 것을 着實하게 實踐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特히 重要な 것은 企業經營者끼리 서로 있는 그대로의 事情을 털어놓고 이야기하여 個別的인 要求에 들어맞는 協力方案을 模索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例컨대 尖端技術分野에 있어서의 技術交流는 世界の 모든 企業이 細心한 注意를 기우리고 있으며 어떤 意味에서는 企業의 生命을 걸 程度の 決意를 가지고 實施하는 것이 通常이므로 그야말로 經營者끼리의 信賴關係가 關鍵이 된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이 分野에 있어서도 貴國과의 交流가 實現되어 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觀點에서 볼때 本 會合을 통해 經營者끼리 알게 되는 機會를 얻고 서로 親交를 두텁게 하며, 特히 本 委員會가 中小企業 經營者 相互間의 交流, 혹은 將次 企業經營을 젊어지고 나갈 靑少

年들의 交流에 힘을 기우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와 같이 해서 推進되는 協力關係의 緊密化를 通해서 日韓兩國은 國際經濟社會 속에서 더욱 地位를 높여 가리라고 豫想되는 바 그러한 가운데서 앞으로 兩國이 어떠한 役割을 遂行해 나가느냐 하는 點에 對해 서로 콘센서스를 이루어, 둘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세안各國, 美國, 中共, 濠洲등을 包含한 太平洋各國들과의 提携가 앞으로는 더욱 強化되어 가리라 생각되는 바, 두나라는 그 經濟發展에 의해서 이들 地域에 있어서의 市場의 擴大, 分業의 進展을 通해서, 또한 例컨대 3 國間 貿易의 擴大와 對外投資에 있어서의 協力등을 通해서 이들 地域의 經濟活性化에 寄與하는 것이 必要하며 바로 그것이 나아가서는 두나라의 經濟安定을 위한 重要한 基盤이기도 하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 5. 結 言

以上 「2000 年代의 兩國의 經濟協力の 方向」에 關해 그 展望과 方式등에 對한 私見의 一端을 披瀝하였읍니다만, 要是 過去 20 年間 서로 努力하고 쌓아올린 相互信賴의 紐帶가 앞으로 두나라가 經濟協力を 推進함에 있어서도 그 基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大統領閣下の 訪日을 契機로 兩國間の 交流가 한층 活潑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쁘기 限이 없으며, 이제 必야흐로 日韓兩國은 서로가 “最善의 파트너”로서의 關係를 構築해 나가는 重要한 段階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貴國에서는 今年 가을 IMF 總會가 開催되며 또 來년에는 아시안게임 그리고 3年後에는 올림픽등 繼續不斷하게 큰 國際的行事를 치루시게 되어 있는 바, 그것들의 成功이 貴國의 經濟發展을 加速化시키고 나아가서는 兩國의 經濟協力關係의 進展에도 크게 寄與하리라 期待하고 있습니다.

貴國이 앞으로 더욱 더욱 繁榮하시기를 祈願하면서 本人의 말을 끝맺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 韓國의 外國人投資政策 및 制度

財 務 部  
投資振興課長 金 永 燮

안녕하십니까.

오늘 尊敬하는 히다카 데루 日韓經濟協會 會長님, 朴泰俊 韓日經濟協會 會長님 및 고명하신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韓國의 外國人投資政策에 대해 說明할 機會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제 자신의 무한한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말씀드릴 順序는 '80 年代의 韓國經濟의 基本政策方向과 最近의 韓國經濟動向에 대해 간단히 言及한 뒤 오늘의 主題인 韓國의 外國人投資政策 및 制度에 대해 '84 年 7 月부터 施行된 改正 外資導入法을 中心으로 說明 올릴 생각입니다.

### I. 80 年代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從來 韓國經濟의 基本政策基調는 強力한 政府主導와 保護에 의한 經濟運營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와 部門間 不均衡을 甘受하더라도 早速히 高度成長을 達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經濟規模가 擴大되고, 發展段階가 成熟한 '80 年以後에는 이러한 從來의 發展戰略은 더 이상 妥當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第 5 共和國 出帆以後 政府는 經濟政策 基調를 크게 變更시켰는 바, 그 主要內容을 말씀드리면

첫째, 安定바탕 위의 成長을 제일 큰 目標로 삼고 있는 바, 이는 物價安定 없이는 經濟가 先進化 되는데 必須的인 要件인 品

質改善, 技術革新이나 經營合理化 努力을 期待하기 困難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自律과 競爭, 開放을 軸으로 하는 市場機能의 活性化를 두 번째 目標로 삼고 있는 바, 이는 世界經濟 與件의 惡化와 우리 經濟發展段階의 成熟으로 이와같은 能率的인 經濟運營 없이는 持續的인 發展이 不可能하기 때문입니다.

그 主要施策中の 하나는 貿易自由化, 外國人投資 및 技術導入의 自由化인 바, 政府는 이를 통해 과다보호에 따른 非能率을 縮小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福祉社會의 具現을 爲한 各種 施策을 物價安定을 통한 實質所得의 向上과 經濟成長을 통한 雇傭機會의 擴大와 더불어 꾸준히 推進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II. 最近의 韓國經濟動向

이같은 政策基調의 轉換에 힘입어 1984 年の 韓國經濟는 國際高金利 및 先進國의 輸入規制等 不利한 要因을 슬기롭게 克服하여 安定基調를 다지면서 內實있는 成長을 持續하였습니다.

都賣物價指數와 消費者物價指數는 各各 1.6 %와 2.4 % 上昇하는데 그쳐 연 3 年째 安定을 이룩한 반면, 經濟成長率은 7.6 %의 健實한 成長을 보였으며, 失業率도 3.8 %로서 '80 年以後 繼續改善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편, '80 年の 經常收支 赤字는 13.6 億弗 水準으로 '83 年 보다 2.5 億弗 改善되었고, 對 GNP 比率도 '83 年の 2.1 %에서 1.7 %로 낮아져 國民經濟에 대한 負擔을 緩和시켰습니다.

今年에도 韓國經濟는 健實한 成長을 계속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國民總生産은 7.5 % 成長하여 880 億弗에 이르고 1 人當 國民總生産은 2,135 弗 水準에 到達하게 될 것입니다. 物價, 賃金, 金利, 換率은 繼續 安定된 것이며, 國際收支 赤字는 5 내지 7 億弗 範圍內가 될 것입니다.

### Ⅲ. 外國人投資政策의 基本方向

韓國政府는 市場經濟의 活性化와 開放經濟政策의 一環으로 새로운 外國人投資制度를 昨年 7 月부터 施行하고 있습니다.

그 主된 內容은 經濟發展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을 원활히 導入하기 爲하여 外國人投資의 門戶를 大幅 擴大하고 技術導入을 自由化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政府는 外國人投資環境을 더욱 改善함으로써 外國投資家の 權益을 保護하고 韓國에서의 自由로운 企業活動을 促進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過去 韓國經濟의 發展은 外國人投資 보다도 借款에 依存한 바가 컸습니다.

앞으로는 外國人投資를 積極 誘致하여 外國人投資가 國民經濟에 차지하는 役割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昨年度의 外國人投資 認可額은 '83 年 보다 56 %가 늘어난 419 百萬弗에 達했습니다. 外國人投資認可가 外資導入 總額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4.4 %에서 7.2 %로 刮目할 만한 增加를 나타내었을 뿐아니라, 그 産業別 構成도 電子·電氣가 17.3 %, 機械·金屬이 34.3 %가 되는等 바람직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편, 今年 3 月末까지의 外國人投資認可額은 81 百萬弗로서 前年

同期의 48百萬弗 보다는 69%가 增加되고 있어 금년의 外國人 投資 展望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음에는 外資導入法의 主要內容을 自動認可制度, 外國人投資比率 및 送金制限 撤廢, 租稅減免制度, 技術導入制度의 順序로 說明드리겠습니다.

#### Ⅳ. 外資導入法의 主要內容

##### 1. Negative List System의 採擇

外國人投資 許容業種의 告示制度를 Positive List System에서 Negative List System으로 바꾸었습니다.

Negative List System에서는 Negative List에 기재되어 있는 業種에 대해서만 外國人投資가 禁止되거나 당분간 제한됩니다. 따라서 同 List에 記載되지 않은 모든 業種에 대해 外國人投資가 可能합니다.

이에 따라, 外國人投資가 可能的 業種의 數는 韓國標準產業分類上 521個 業種에서 660個 業種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製造業의 境遇에는 全體業種의 86%에 대해 外國人投資의 門戶가 開放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政府는 昨年 12月 Negative List 上의 20個 業種에 대해 一定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가 可能하도록 追加的인 許容基準을 制定・公表하였습니다.

政府는 이러한 Negative List를 今年부터 '88년까지의 每年 縮小・調整함으로써 外國人投資 自由化 幅을 擴大할 것입니다.

## 2. 自動認可制度

外國人投資 節次를 簡素化 하기 위하여 10日 以内に 認可하는 自動認可制度를 新設하였습니다.

○ 自動認可要件은 다음과 같습니다.

- 外國人投資比率이 50 % 未滿일 것.
- 外國人投資金額이 100萬弗 以下일 것.
- 外資導入法에 의한 租稅減免 申請이 없을 것.

이러한 自動認可의 要件도 점차 緩和함으로써 自動認可의 幅을 擴大해 나갈 方針입니다.

自動認可制度에 의한 外國人投資認可는 昨年 7月以後 모두 20件에 달해 全體 認可件數 65件의 31%에 달했습니다.

## 3. 外國人投資比率 및 送金制限 撤廢

- 外國人投資比率은 1%에서 100%까지 外國投資家が 國內・外 與件을 勘案하여 스스로 決定하고 政府는 이를 尊重할 것입니다.
- 從前에는 投資元本을 外國人投資登録後 2年이 經過하여야 回收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撤廢하여 언제든지 자유로이 회수해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租稅減免制度

外國人投資企業도 國內企業과 同等한 待遇를 받습니다. 따라서, 國內企業과 同一하게 所得稅法, 法人稅法, 租稅減免 規制法等이 適用됩니다.

各 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機械・電子等 重要產業에 대한 特別償却, 投資稅額 控除等の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中小企業, 技術開發, 輸出 및 投資促進等を 위한 租稅支援도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外資導入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만을 위한 別途의 內國稅 및 關稅減免의 惠澤도 받을 수 있습니다. 內國稅는 從前의 業種別 減免方式에서 國際收支改善, 高度技術等 國民經濟的 効果에 따른 減免方式으로 바꾸었습니다.

減免되는 內國稅는 法人稅, 配當所得稅, 取得稅와 財産稅입니다. 法人稅와 配當所得稅는 外國人投資企業登錄日로부터 10年 以內에 어느 連續的 5年을 選擇하여 免除받을 수 있습니다.

資本集約的 産業은 法人稅와 配當所得稅 免除 대신에 特別償却의 惠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出資目的物로 導入되는 資本財에 대한 關稅減免(特別消費稅와 附加價值稅 包含)은 製造業, 觀光호텔業等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免除된 것입니다.

##### 5. 技術導入의 申告制 轉換

종래에는 技術導入에 대하여 技術導入의 必要性, 導入技術의 內容, 代價의 適正性等에 대해 審査하여 認可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改正 外資導入法에서는 종래의 認可方式을 申告制로 轉換하여 특별한 缺格事由가 없는 限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先進技術을 申告에 의해 導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당사자간의 契約을 尊重하여 技術導入 申告를 受理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技術導入契約의 申告受理가 拒否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 單純한 儀仗, 商標의 使用 또는 獨占販賣權의 利用만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境遇

- 原資財, 部分品 또는 附屬品の 販賣만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境遇
- 輸出制限條件等 顯著한 不公正 內容을 包含하는 境遇 等 特別한 缺格事由가 있는 境遇에 限定됩니다.

이 같은 技術導入 申告制에 힘입어 昨年度의 技術導入 件數는 432 件으로서 '83 年の 360 件에 比하여 크게 増加하였습니다.

## V. 結 論

韓國은 政治的으로나 社會的으로 安定되어 있으며, 賃金과 物價 또한 安定되어 있습니다. 잘 整備된 社會間接資本, 豊富한 高級 勞動力 및 賃金水準에 비해 相對的으로 높은 生産性等 여러 側面에서 日本企業人 여러분을 위한 좋은 投資 場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政府는 앞으로도 外國投資家の 立場에서 投資環境을 改善하고 外國人投資를 積極 誘致하고자 합니다.

서울 올림픽이 開催되는 '88 년까지는 年間 外國人投資 認可金額 10 億弗 및 外國人投資 自由化率 90 % 達成을 目標로 하여 積極的인 外國人投資誘致 活動을 展開할 것입니다.

지난 20 餘年間 韓・日 兩國은 緊密한 經濟協力關係를 維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代表的인 例로서 日本은 韓國의 第 1 의 投資 및 技術 파트너였습니다. 卽, '62 年 以來의 總 外國人投資 認可額 21 億弗中 日本企業人이 投資한 金額은 全體의 41.4 %인 10 億弗 이었으며 總 導入技術 認可件數 3,073 件中 日本企業人이 技術提供을 한 것은 全體의 55.4 %인 1,701 件 이었습니다.

한편, 昨年 한해 동안의 韓國의 日本에 대한 輸出은 46 億弗이었고,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은 76 億弗로 日本과의 交易量은 全體 交易 量の 20.4 %를 占하는 대단히 重要的 파트너였기도 합니다.

日本經濟는 世界經濟의 心臟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豫想되는 바입니다. 1983 年 日本의 GNP는 1 兆 1,560 億弗로서 韓國의 15 倍였으며, 1 人當 國民所得은 9,713 弗로서 韓國의 6 倍에 達하고 있는 韓·日 兩國間の 經濟 및 技術水準의 顯격한 差이를 勘案할 때, 韓國에 대한 投資增大나 技術提携는 相互·補完的인 關係에서 兩國의 發展을 더욱 促進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韓·日間の 友好增進과 經濟的인 紐帶強和를 爲한 여러분의 努力에 感謝를 드리며, 여러분 企業의 無窮한 發展과 여러분 家庭에 幸運이 항상 함께 하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敬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 日 本 側 質 問

經 濟 團 體 連 合 會  
專 務 理 事 三 好 正 也

經團連의 三好을시다.

質問을 하겠습니다. 方今 金課長께서 하신 說明은 대단히 興味있게 들었습니다. 우선 質問에 앞서 지금의 說明에 對해 簡單히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韓國에 있어서 방금도 말씀이 계셨듯이 外國人投資는 資金面에서 크게 플러스가 되며, 나아가서는 技術移轉이라는 觀點에서도 重要的 役割을 遂行한다는 指摘에는 저희도 그러한 積極的인 立場을 貴國의 政府指導者 여러분들께서 取하고 계신 것을 높이 評價하고자 합니다.

日本으로서도 이미 日本은 投資國이 되어 있으므로, 國際分業의 促進과 經濟協力の 增進이라는 觀點에서 直接投資의 擴大는 重要的 意味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說明하신 外資導入法の 改正은 內容적으로 크게 歡迎할만 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韓國政府가 投資環境整備를 위해 여러모로 努力하고 계신데 對해 眞心으로 敬意를 表합니다.

이제부터 質問에 들어 가겠습니다. 最近 發生한 어떤 事例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韓國에 進出하고 있는 某合作企業에 關聯된 問題로서, 이 合作企業이 設備增設을 하고자 했더니 中小企業調整法이라는 法律이 있고, 그 法律의 解釋에 따라 同 增設은 商工部の 認可를 必要로 한다는 것으로, 認可를 얻기 위해 申請을 하라는 要求가 있었습니다.

물론 中小企業調整法은 韓國產業의 基盤을 擴大하고 또 그 韓國產業의 充實化를 期한다는 뜻에서 重要的 政策을 담은 法律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外資導入法의 大幅的인 改正에서 나타난 外資導入에 關한 韓國의 前向的인 政策方向과 中小企業調整法 適用에서 보는 政策方向 사이에는 갭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알기 쉽게 말씀 드리자면 外資導入政策이 바뀌었으니까 이와 關聯해서 다른 政策分野의 政策도 當然히 開放的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常識的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法律 사이의 關聯關係, 나아가서는 外資導入法과 中小企業調整法의 어느 쪽에 優先順位를 두고 運營하실 方針이신지 그것을 여쭙어 보고 싶습니다.

質問을 마칩니다.

## 韓 國 側 答 辯

財 務 部  
投資振興課長 金永燮

答辯하겠습니다.

方今 質問하신 內容은 韓國에 있어서의 中小企業調整政策과 外資導入政策의 調和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러한 問題를 말씀하신대로 前向的인 姿勢로 檢討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現況을 말씀드리자면, 韓國에 있어서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均衡發展을 위해서는 中小企業의 系列化品目과 中小企業의 固有品目이 있는 바, 中小企業系列化品目の 경우에는 既存中小企業과 外國投資家가 合作을 하거나 既存業體가 生産이 不可能한 品目에 對해서는 投資가 可能합니다. 두번째로 中小企業固有品目の 경우 外國投資家가 同分野에 投資하고자 할 때에는 外國人投資家가—國內 大企業도 마찬가지입니다—合作企業을 實質的으로 支配하지 않는 경우에는 全然 問題가 없습니다. 實質的인 支配라 함은 株式持分이 50 %를 超過하거나 또는 外國投資家가 最大株主일 경우등이 該當됩니다. 이러한 實質的인 支配關係가 있을 경우의 投資時에는 同投資가 中小企業과 大企業의 均衡發展問題와 또 그것이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許容與否가 決定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質問하신 具體的인 事案은 間接的으로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만, 現在 關係部處인 商工부와 協議가 進行中에 있으며 보다 積極的으로 協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第 12 回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韓日貿易擴大均衡委員會  
委員長 李 宜 基

第 12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會議에 關해 報告드리겠습니다.

委員會는 1985 年 2 月 26 日에서 2 月 28 日까지 3 日間 서울에서 開催되었습니다. 同會議에는 韓國側에서 本職을 비롯한 19 名의 代表가 日本側에서는 京本善治 委員長을 비롯한 14 名이 參加하여 關稅 및 特惠關稅 問題와 貿易障壁의 改善等 韓日 兩國의 貿易環境 問題와 國際分業의 推進等에 關한 兩國 貿易協力 方案을 議題로 忌憚없는 意見を 交換하였습니다.

1. 우선 兩國의 貿易環境 問題에 대하여 韓國側은 韓國의 對日 關心品目에 대한 關稅引下 및 特惠關稅制度의 改善을 要望하는 同時에 昨年 12 月 第 6 次 市場開放 措置에 있어서도 開途國 對策이 未洽함을 指摘하고 追後 市場開放 措置에 있어서는 韓國側의 關心品目이 大幅 反映될 수 있도록 日本側의 格別한 協力を 要望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日本側은 從來 實施된 市場開放措置를 說明함과 同時에, 韓國側의 要望을 日本政府에 傳達키로 約束하였습니다.

2. 韓國側은 또 日本에 殘存하는 非關稅 障壁을 具體的인 事例를 들어서 指摘하고 이들 非關稅 障壁의 撤廢 내지는 緩和를 強力히 要望했습니다. 이에 대해 日本側은 日本의 市場開放의 實情 및 日本의 輸入自由化率等에 대해 설명하고 韓國側이 主張하는 行政 指導等이 誤解에 起因하고 있는 部分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問題는 日本 政府의 OTO ( Office of Trade Ombudsman , 市場開放問題 苦情處理 推進本部 )에 提出하는 方法도 있다는 점을 說明하고, 日本 政府에 韓國側의 要望을 傳達키로 約束했습니다.

3. 日本側은 駐韓 外國企業의 STATUS 改善에 關해, 輸出入業種制限의 緩和를 要望함과 同時에 Offer 去來 手數料에 대한 認定課稅制度의 改善을 要望했습니다. 이에 대해 韓國側은 國內 輸出入業體의 對外競爭力이 一部 몇개 大企業을 除外하고는 미약하므로 지금 당장은 外國企業에 대한 大幅的인 緩和가 어려운 實情이나 經濟의 開放化 추세, 國內 輸出業界의 成長等 諸般與件을 고려하여 漸進的으로 緩和할 計劃임을 說明하였습니다. 아울러 韓國側은 認定課稅制度에 대하여 지난 2月 단행된 바 있는 改善措置에 의해 Offer 手數料 基準率이 平均的으로 引下되고 差等率이 基準率의 46 %에서 30 %로 大幅 낮아지고 去來金額에 따른 差等率 適用 基準도 종전의 100 만불에서 10 만불로 낮아짐에 따라 去來 規模가 比較的 큰 日本 商社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을 公여받게 된다고 說明하였습니다.

韓國側은 이런 問題에 관한 日本側의 要望을 政府에 傳達키로 約束했습니다.

4. 日本側은 또한 韓國의 輸入先 多邊化 品目の 指定에 따른 輸入制限의 緩和를 要望하였고 이에 대해 韓國側은 輸入自由化 計劃에 의거 輸入先 多邊化 品目이 계속 縮小되고 있음을 說明하고 日本側 立場을 韓國 政府에 傳達하기로 約束하였습니다.

5. 다음으로 兩國의 貿易協力 方案에 대하여 韓國側은 亞細亞・太平洋 地域의 새로운 協力體制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韓日 兩國의 相互 協力の 必要性을 強調하고 國際 分業을 통한 貿易 및 技術移轉을 擴大하는 한편 이를 促進하기 위해 兩側에 各己 實務的인 「專門팀」을 構成하자고 提議했으며 日本側은 이 提案에 理解를 表示하고 앞으로 檢討後 그 실현을 도모하자고 提議하고 이에 兩側이 合意하였습니다.

6. 韓國側은 지난해 10月 日本의 對韓 輸入等促進團 派遣後 事務的인 Follow-Up 을 擔當키 위해 設立한 韓日市場協議會에 關해 說明하고 오는 5月 20日부터 派遣 豫定인 輸出促進團 訪日時 日側의 積極的인 協助를 要請했고 日本側도 이에 대해 금년 2月 日韓市場協議會가 設立되었음을 說明하고 韓國의 輸出促進團 派遣時 積極 協助해 줄 것을 約束하였습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第 10 回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韓日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張 炳 贊

第 10 回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에서 合意된 內容과 그 以後의 活動狀況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同合同會議는 韓國側에서 本人을 비롯하여 19 名의 委員이 日本側에서는 故浦川淸人 委員長을 비롯한 17 名의 委員이 參席한 가운데 1984 年 5 月 15 日부터 3 日間 日本 賢島에서 開催되었습니다.

會議는 具體的인 討議에 앞서 韓・日 兩側에서 各各 基調演說이 있었습니다.

먼저, 日本側에서 “日本の 機械工業現況”에 관하여 日本機械工業聯合會의 德增 肇 常務理事로부터 報告가 있었는데 日本の 機械工業 30 年史를 中心으로 說明되어 日本機械工業發展過程을 理解하는데 많은 參考가 되었습니다.

韓國側에서는 韓國機械工業振興會 羅昌洙 專務理事로부터 “韓國의 機械工業現況”에 관하여 報告가 있었는데 最近, 韓國機械工業의 景氣動向, 育成方向, 當面課題에 대한 說明으로 活潑한 質疑應答이 交換되어, 兩國機械工業의 現狀을 相互 理解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議題別 討議에 들어가서

첫째, 第 1 回 韓日産業設備輸出協力會議 報告

둘째, 機械工業의 資本・技術協力

셋째, 韓國技能工의 派日訓練協力

넷째, 日本의 産業設備輸出現況

다섯째, 對韓機械類購買使節團 派遣

여섯째, '85 東京國際見本市 參加

일곱째, 機種別 專門家の 派韓 技術教育協力

여덟째, MACHINE TECH/KOREA '84 開催協力

等に 대하여 活潑한 討議가 이뤄졌읍니다. 그 內容을 要略하여 報告드리면,

첫번째 議題인 第1回 韓日産業設備輸出協力會議 報告에 관하여, 日本機械輸出組合의 吉川佐吉 專務理事로부터 第1回會議까지의 經過 및 會議結果에 대한 報告가 있었읍니다.

그後, 第2回會議가 '84年11月 東京에서 韓國側은 本人을 비롯하여 19名의 委員과 日本側은 吉川順一 委員長代行을 비롯한 38名의 委員이 各各 參席한 가운데 兩側이 各各 産業設備輸出現況, 世界市場分析과 더불어 低迷하는 世界産業設備輸出市場에서 競爭이 아닌 相互協力進出 必要性이 強調되었읍니다. 또한, 金融 및 保險을 中心으로 兩國의 産業設備輸出關聯制度에 관하여 關聯機關으로부터의 說明과 함께 金融面에서의 積極적인 支援과 共同保險協約 締結을 檢討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兩國業界에 의한 第3國協力輸出 事例發表로 協力輸出의 MERIT와 問題點에 관한 意見交換이 活潑하게 이뤄졌으며, 이어 個別接觸에 들어가서 參席委員別 相互 情報交流 活動을 벌였습니다.



두번째 議題로서, 機械工業의 資本・技術協力에 關하여, 韓國의 外資導入法改編內容 說明과 함께 斡旋窓口的 活性化, 그리고 比較的 交流가 적었던 業種에 있어 相互協力を 促進키 위해 우선 纖維機械 業界間 交流를 推進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資本・技術協力的 擴大를 위하여 韓國의 受容態勢整備와 對韓投資・技術協力的 障害要因을 日韓經濟協會가 調査키로 하였습니다.

그後, 纖維機械業界 交流에 있어, 今年 9月 大阪에서 열리는 國際纖維機械쇼 期間을 利用하여 同視察團을 日本에 派遣할 豫定이며, 1984年 9月 韓國의 食品・包裝加工機械視察團이 東京 및 大阪地域의 關聯業界見學과 TOKYO PACK'84에 參加하여 兩業界間의 理解增進과 技術開發現況把握에 많은 參考가 되었습니다.

세번째 議題로서, 韓國技能工의 派日訓練協力에 關하여 政府배이스의 研修計劃이 具體化되는데로 日本側會員社를 中心으로 最大限 協調키로 하였습니다. 그後, '84年度에 總31名中 機械工業界에서 20名이 派日되었습니다.

네번째 議題로서, 日本의 産業設備輸出現況에 關하여 日本 PLANT協會 井口 十四三 理事로부터 過去 3年間の 世界産業設備輸出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앞으로의 展望에 關하여 分析 報告되었습니다.

다섯번째 議題로서, 對韓機械類購買團 派遣에 關하여 關聯機關과 協議하여 實現키로 하였습니다. 그後, 訪韓國輸入等促進團이 1984年 10月 來韓하여 17名の 機械班이 88個社 191件的 商談活動을 벌였으며 今年 2月과 3월에 纖維機器와 造船用機資材를 對韓購買키 위하여 來韓, 商談活動을 進行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議題로서 東京國際見本市에의 出品協力, MACHINE TECH/KOREA '84 開催協力에 關하여 特히, MACHINE TECH/KOREA '84에 本專門委員會 및 日本機械工業聯合會가 協賛하고 出品協調키로한 後, 同協賛下에 '84年9月 서울에서 盛況리에 開催되어 韓國의 機械工業界에 있어 品質向上과 技術開發促進에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機種別專門家の 派韓技術教育協力에 關하여, 高壓보일러와 油壓시스템 技術을 中心으로 實施키로 한 後, 1984年11月 서울에서 高壓보일러 製作技術에 關하여 實施하였으며, 今年 7月 油壓시스템에 關하여 實施할 豫定입니다.

以上으로 第10回 合同會議 結果 및 그 以後 오늘까지 活動內容에 대하여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第 5 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 員 長 朴 龍 學

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으로서 韓日・日韓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第 5 回 合同會議經過를 中心으로 活動狀況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第 5 回 合同會議는 昨年 9 月 26 日부터 27 日까지 2 日間 日本國 筑波에서 開催되어 韓國側은 本人外 12 名이 日本側으로부터는 秋田委員長外 12 名이 參席하였습니다.

合同會議에서는 報告討議에 앞서 筑波大學의 渡邊利夫 教授로부터 韓日水平分業의 現狀과 展望이라는 講演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열린 合同會議에서는

- 資本・技術協力の 現況・將來・問題點
- 「2000 年代의 韓日經濟協力姿勢에 관한 共同研究 PROJECT」

라는 두가지 큰 議題를 가지고 討議가 進行되었습니다.

이 會議에서는 韓日・日韓水平分業의 現狀과 將來에 關하여 率直한 意見의 交換이 있었으며 兩側은 水平分業의 促進이 兩國의 經濟發展을 위해 有益하다는 點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또한 資本 技術協力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하여 韓國側은 日本의 積極的인 韓國에의 技術移轉이 兩國 모두에게 有益하다는 點을指摘하고 日本側의 對韓技術移轉의 促進을 希望하였으며, 日本側은 技術移轉을 위해서는 市場機能이 보다 잘 機能할 수 있는 環境整備

가 必要하다는 點을 指摘하고 韓國側은 現在 그것을 推進하고 있음을 說明하였습니다.

兩國의 貿易不均衡問題는 構造的인 面도 있어 이의 改善을 위해 서도 技術移轉의 必要性이 있다는 點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韓國側은 對日貿易赤字解消을 위한 早速한 措置가 이루어질 것을 希望하는 同時에 韓國이 對日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大都市뿐 아니라 地方에서의 市場開拓努力이 必要하다는 것을 認定하고 日本側도 이에 努力할 것을 確認하였습니다.

또한 「2000 年代의 韓日經濟協力方案」 具體化作業 檢討를 위한 專門家會議을 갖기로 合意하여 그후 85 年 3 月 18 日 日本國 東京에서 兩側委員長 및 專門家が 參席한 會議을 가졌으며, 이번 會議에서는 그동안 兩側에서 檢討하여 왔던 共同研究事業의 計劃을 說明하고 具體的인 推進方案을 論議하였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同研究事業의 方向은 韓日兩國의 經濟協력이 兩國 모두에게 重要한 問題이면서도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음에 비추어, 兩國에게 바람직한 協力の 基本方向을 設定하는데 目的을 두기로 하고, 특히 兩國의 產業政策上的 調和를 모색하는데 重點을 두어 兩國의 產業構造 調査 等으로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研究事業에 必要한 資金은 兩國委員會가 調達하기 위해 準備中이며 研究期間을 우선 86 年 9 月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에 關聯된 兩側의 研究擔當者는 대학교수, 전문가,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研究팀 등이 되며, 進行責任者는 韓國側에서 曹圭河 全經聯 常務, 日本側에서는 日本長期信用銀行 竹內宏 常務가 각각 맡

기로 하였습니다.

次期合同會議는 今年가을 韓國에서 開催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칩니다.

### 第3回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韓日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韓 在 烈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의 '84年度 活動狀況과 '85年 3月 26日 日本國・東京에서 開催된 第3回合同會議에 關해 報告 드리겠습니다.

'84年 3月 23日 서울에서 開催되었던 第2回合同會議에서 採擇된 鍍金, 染色, 金型加工, 鑄鍛造 分野에서의 韓國技能工 派日研修에 있어는 昨年부터 兩國官民合同 베이스로 實施되고 있는 바, 이는 「韓國技能工의 日本에서의 研修計劃」에 包含된 것이며, 同計劃에서는 日本側의 外務省, 通産省, 運輸省 以外에 國際事業協力事業團, 海外技術者研修協會, 經團連, 日本商工會議所, 日本機械工業連合會 및 日韓經濟協會등이 參與하여 지난 2月 22日에는 韓國研修生 31名中 24名에 對한 第1回修了式이 國際事業協力事業團과 海外技術者研修協會에서 舉行되었고 여기에는 韓日官民關係者 多數가 參席하였습니다.

報告에 의하면 研修生들이 자못 熱心히 研修에 臨했던 事實이 受容企業側으로부터 認定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繼續해서 第2回研修生派遣에 關해서는 現在 兩國政府間에 協議中에 있습니다.

다음 對韓購買使節團에 關해서는 昨年 10月 5日부터 8日間 都合 144名の 團員이 서울, 釜山等地를 訪問하였는 바 여기에는 日本의 中小企業들도 多數 包含되어 對日市場에의 액세스 및 日本市場에 適合한 商品에 關한 助言 및 指導, 新規輸入商品의 調査등을 實施함으로써 兩國間交易發展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第2回合同會議에서 韓國側으로부터 要請이 있었던 日本의 中小企業經營管理에 關한 講習會의 開催는 事情에 의해 第3回合同會議 以後에 實施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兩國間中小企業經濟協力으로서 鳥取縣中小企業團體中央會, 北九州異業種技術交流研究會, 大阪中小企業團體中央會, 橫濱中小企業體 등이 韓國産業視察은 勿論 懇談會도 開催하여 兩國中小企業間的 協力에 關해서 論議하였습니다.

韓國으로부터도 日本國에 協力使節團 2回, 市場調査團 6回, 展示會參觀團 4회를 派遣하는 한편 IC産業等에 의한 하이테크時代에 들어서서의 尖端技術세미나등을 2回 開催하였습니다.

다음 지난 3月26日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第3回合同會議에 關해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會議는 兩國委員 40名 參席下에 渡邊禮之委員長을 議長으로 東京商工會議所會議室에서 進行되었습니다.

이 會議에서는 電子部品, 機械部品, 自動車部品과 鍍金, 染色, 金型加工에 對한 中小企業關聯機關과의 相互協力方案이 論議되어 研修生派遣, 相互訪問, 技術提携등이 關聯團體를 통해서 積極적으로 促進될 수 있도록 兩側委員會가 努力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日本中小企業 및 韓日合作投資會社の 成功事例세미나 開催에 關해서는 兩側事務局이 日程, 場所, 講師의 選定등을 決定토록 一任 하였습니다.

兩國政府베이스로 合意된 技術者交流計劃은 보다 効果적으로 推進될 수 있도록 民間機構間的 相互協力を 深化시킴으로써 積極적인 實現을 꾀하기로 하였습니다.

韓國中小企業이 生産工程, 會計, 原價 및 在庫管理 등에 컴퓨터를 活潑하게 活用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의 開發協力과 特別技術講演을 통한 日本企業의 成功事例 紹介 등을 韓旋기로 하였습니다.

兩國中小企業의 使節團 相互訪問에 있어서는 産業視察, 關聯機關訪問 등을 相互 韓旋함으로써 交流擴大를 支援기로 하였습니다.

日本側으로부터는 通産省中小企業廳의 今年度 中小企業技術力向上對策에 關한 說明과 아울러 슬라이드를 통한 中小企業과 技術開發에 關한 說明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다음 合同會議는 韓國・서울에서 開催기로 되었습니다.

以上으로 報告를 마칩니다.



## 日本側의 對韓投資調查團派遣 (提 案)

(株) 元 伸 實 業  
社長 朴 魯 聖

韓國民間經濟界에서는 政府關係當局의 後援을 받아 지난 85.3.6 ~ 16 까지 12日間 35名으로 구성된 對日投資誘致團을 日本에 派遣한 바 있으며, 同 誘致團은 東京, 名古屋, 大阪 3個地域을 中心으로 84.7.1 字로 改定施行中인 韓國外資導入法에 대한 說明會와 業種別投資商談活動을 實施했습니다.

同 行事は 日本側에서 積極적으로 大舉參與해 주셔서 成功裡에 끝났으며, 이는 오로지 여기 參席하신 여러 經濟人여러분의 協力 덕택으로 생각하며 衷心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前에 財務部 關係官께서 자세한 說明을 하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經濟成長에 必要한 外資를 借款에 依存한 바 있었으나, 向後에는 外國人投資를 積極적으로 誘致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外國人投資門戶의 大幅擴大 및 技術導入의 自由化를 위해 外資導入制度를 改編施行中에 있습니다.

이 結果 昨年度 外國人投資認可額은 1983年 對比 56%가 增加한 4億 1900萬불에 達했으며, 外國人投資認可額이 外資導入總額에 占하는 比重도 4.4%에서 7.2%로의 增加를 보였습니다. 主要改編內容은 이미 財務部 關係官의 說明이 있었으므로 省略하겠습니다.

이에 日本側委員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싶은 事項은 지난 3月 對日投資誘致團이 日本地域에서 說明드린 事項 以外の 實際與件을 여러

분이 直接 確認할 수 있도록 對韓投資調查團을 구성, 派遣해주십사 하는 點입니다.

꼭 오셔서 改善된 韓國의 投資環境을 確認하시고, 同時에 아직 少數이기는 합니다만, 지난 3月 對日投資誘致團 과견기간中 시작된 投資商談의 FOLLOW-UP等 具體的이고도 實務的인 投資商談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견 시기는 日本側의 편리한 時期로 하시되 可能하시면 今年 가을 以前에 實現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5. 4. 11.

## 對韓投資調查團派遣提案에 對한 日本側 答辯

山一證券(株)

會長 植谷久三

植谷久三을시다.

朴社長님 投資促進을 위한 여러가지 方案을 說明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本人도 山一證券의 會長으로서 對日投資의 勸誘뿐만 아니라 日本의 投資家 또는 會社에 의한 對外投資의 促進을 돕고있는 만큼, 有望한 投資先으로서 貴國이 制度 및 條件을 整備하고 계시는 狀況을 듣고 대단히 參考가 되었습니다.

方今 提案해 주신 投資調查團의 派遣에 對해서는 日本側으로서도 前向的으로 檢討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자리에 계신 日本側代表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으로 압니다만, 本人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現在 韓國과 日本 雙方에서 일고 있는 投資促進의 氣運을 생각하고 또 現在 日本이 농여 있는 國際社會에서의 地位를 생각해 볼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또한 過去는 물론 將來에 있어서도 友好關係를 繼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韓日兩國에게 있어서 서로의 投資環境을 잘 안다는 것은 不可缺少 要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日本의 民間企業들이 貴國의 投資環境을 現地에서 仔細하게 工夫할 수 있는 機會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有意義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貴國에서는 이미 3月 7日부터 15日까지 官民合同으로 外國人投資

制度説明團이 訪日하셔서 東京・大阪・名古屋의 各地에서 開催된 說明會가 大盛況을 이루어 所期の 目的을 充分히 達成하셨다고 듣고 있는 바 協力을 해 드린 저희들로서도 同慶해 마지 않는 바 입니다. 同時에 日本側으로서도 이처럼 高潮되고 있는 氣運을 向後的 投資促進에 連結시키기 위한 努力을 繼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日本은 昨今 資本供給國으로서의 役割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日本銀行의 統計에 따르면, 長期資本收支는 1980 年을 除外하고 毎年 出超를 보였고 1984 年 즉 昨年에는 그것이 498 億달러에達했습니다.

여기에는 日本이 높은 貯蓄水準을 維持하고 있는 反面에 國內의 投資需要가 低調하다는 事情도 있습니다만, 國際經濟社會의 一員으로서의 立場에서 볼 것 같으면, 日本이 資本輸出國으로서의 責任을 自覺하고 資本이 不足한 나라들에 對해 經濟發展을 위해서 必要한 資金을 供給하는 時期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貴國을 비롯한 新興工業國들은 最近 數年 以來 世界經濟가 停滯氣味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지극히 高率의 成長・發展을 이룩하였고 저희들도 같은 아시아의 友邦으로서 有無相通, 共存共榮의 時代를 맞고 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貴國의 資料에 따르면 日本으로부터 貴國에 對한 投資는 1962 年부터 1984 年 6 月까지의 累計가 687 件, 金額으로는 9 億 7,438 萬 달러에 이르러 國別投資件數 및 金額에서 모두 首位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平均投資額에 있어서는 161 萬달러를 若干 웃도는 정도

1件當 金額이 적은 것은 익히 指摘되고 있는대로 입니다.

앞으로의 課題로서는 投資의 大型化가 促進될 것, 그리고 合作에 의한 資金만이 아니라 技術移轉도 順調롭게 이루어지는 길을 開拓해야 한다는 點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兩國代表團 여러분의 努力으로 兩國民間 經濟界의 主導下에 兩國間의 經濟交流가 促進되기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 技術移轉斡旋의 活性化(提案)

韓 日 經 濟 協 會  
常 勤 副 會 長 李 尙 秀

1983 年 4 月 서울에서 開催된 第 15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에서 兩側은 兩國企業間의 技術協力 推進을 支援하기 위한 窓口를 設置키로 合意한 바 있으며, 同 合意에 依據 韓國側은 韓日經濟協會, 日本側은 日韓經濟協會로 窓口를 確定, 技術移轉을 위한 斡旋業務를 推進해 오고 있습니다. 이 窓口設置以後 韓國側에서는 20件의 技術移轉要請을 日本側에 한바 있으나 아직 아무런 結實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勿論 技術移轉이라는 것이 一朝一夕에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期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雙方의 窓口를 통한 技術移轉斡旋業務가 向後 보다 活性化될 수 있도록 여러委員께서 積極 協力해 주실 것을 提議드립니다.

## 技能工研修의 擴大(提案)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 金 啓 鎬

今日 韓日兩國의 經濟界 代表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하신 이 會議席上에서 本人이 韓國側 中小企業技能工의 日本派遣研修와 關聯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周知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韓國技能工의 對日本派遣研修事業은 지난 1983年1月 日本의 中曾根康弘 首相의 訪韓으로 이루어진 兩國間 頂上會談과 1984年9月 韓國의 全斗煥大統領의 訪日에 따른 頂上會談에서 提議確認된 것입니다. 이의 具體的 實現을 爲하여 兩國政府는 二次에 걸친 政府側 實務者 會議를 가진 바 있으며 1984年11月9日에는 이의 具體的인 推進方案이 마련되어 兩國政府間의 協約이 締結되었던 것으로 本人은 理解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昨年4월에 日本 京都에서 開催되었던 本會議에서 本人은 兩國間의 産業技術協力 次元에서 韓國의 中小企業技能工의 對日派遣研修에 對하여 보다 具體的인 方案을 提案드린 바도 있습니다.

本人은 당시 提案說明에서 韓國과 日本은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隣接國일뿐만 아니라 經濟的인 面에서도 두터운 協力關係를 形成하여 國家間分業의 相互利益을 共同으로 追求하고 있는 立場에서 우리나라 中小企業技能工의 日本研修에 對한 協力을 要請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本人의 提案에 對하여 日立造船株式會社の 永田敬生 代表取締役께서 研修生 受容體制問題, 研修生の 姿勢問題 등을指摘하면서도 이 事業에 對하여 協調를 아끼지 않겠다는 答辯이 있었

읍니다.

그후 研修生 接受協議會의 會員이신 日韓經濟協會 會長과 經濟團體連合會 會長의 連名으로 各 受容企業이 研修生을 受容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書信까지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結果로 1984 年 11 月에 派遣되었던 1 次 研修生들은 兩國政府間의 協力下에 現地에서 滿足할 만한 現場研修를 받게된데 對하여 매우 感謝하고 있습니다. 그 3 個月 및 4 個月 過程의 研修生들의 一部는 이미 研修를 마치고 歸國하였으며 나머지 一部 研修生들은 아직 日本의 生産現場에서 研修를 받고 있습니다.

이 機會에, 研修를 마치고 歸國한 研修生들이 研修期間中 보고 느낀 所感과 成果등에 對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研修生 大部分이 日本語 能力의 不足으로 研修에 곤란을 느낀 점도 있었지만, 日本이 文化・慣習등에서 韓國과 비슷한 점이 많은 까닭에 日本이 외의 他國에 갔을때 느껴지는 不便함이 훨씬 적었다고 했으며, 日本의 關係機關 및 研修受容企業에서 細心한 配慮와 親切을 베풀어 주신데 對해 모두 感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研修의 成果面에서는 單純하게 技術技能의 習得만이 아니고 日本의 工場에서 日本人과 함께 生活하면서 職場規律이나 勤勞倫理 등을 體得함으로써, 現 日本經濟의 發展은 勤儉節約하는 經營方式, 經營陣과 從業員과의 圓滿한 勞使關係, 勤勞者의 作業精神등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事實들을 再認識할 수 있었다는 點입니다.

셋째로, 日本에서 3 個月 以上 日本人과 함께 生活한 結果, 이웃 日本人을 올바르게 理解할 수 있었으며, 또한 반대로 日本人에게 올바른 韓國人像을 심어 줄 수 있는 좋은 契機가 되어 相互間에



親近한 人間關係가 맺어질 수 있었다는 點 등입니다.

이는 兩國間의 經濟協力增進이라는 次元以外에도 人的交流를 通한 理解增進에 큰 役割이 되었다고 判斷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接受協議會 會員 및 經濟界 代表께 다시 한번 感謝를 드리며, 특히 1次 研修生을 直接 受容하여 주신 川崎重工業株式會社 梅田善司 會長님께도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이러한 對日本派遣研修의 成果를 더욱 發展시키기 위해 저희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는 今年에도 日本에 派遣할 研修對象者를 募集했던 바 많은 人員이 研修를 希望하여 왔고, 이들에 對한 所定の 審査를 끝마쳐 새로운 研修對象者 名單을 1985年2月 日本政府에 提出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第一次 研修生 派遣時에는 大企業의 從事員도 一部 包含되어 있었으나 今年的 第二次 研修對象者는 中小企業에 從事하는 技能工中心으로 高等學校 卒業水準인 젊은 層에서 選拔하였으며 또한 第一次 研修時 日本側에서 難色을 表明한 分野는 가급적 除外하였고 日本企業과 資本協力, 技術提携, 貿易去來등의 關係가 있는 企業의 從業員을 優先하여 選拔하였음을 附言합니다.

그러므로 日本政府에서는 今年에 提議한 研修對象者들을 가능한한 全部 受容하여 現場研修가 實施되도록 해주실 것을 期待하고 있습니다. 또한 今番에 選拔된 2次 研修對象者들에 對해서는 1次 研修生들이 現地研修時 日本語 能力不足으로 險路가 있었다는 點을 勘案하여 저희 中小企業振興公團에서는 徹底한 事前準備를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도 日本語 習得에 많은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며 1次 研修生 때보다는 現地 適應力이 훨씬 좋을 것으로 判

斷되며 日本 現地研修機會가 조속히 實現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韓國技能工 日本研修事業은 모든 事項이 兩國政府間에 合意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周施하고 受容하게 될 日本側의 經濟團體 및 受容企業의 積極的인 協調와 呼應이 없이는 결코 滿足할 만한 成果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本人은 이 對日派遣研修事業이 年次的으로 擴大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協調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韓國 中小企業의 젊은 技能工들이 日本의 現場研修를 通하여 産業現場技術의 習得은 물론 兩國의 長點을 서로 배우고 理解함으로써, 韓日兩國間的 實質的인 産業技術協力の 效果擧揚과 젊은 世代들에 의한 韓日新時代의 開拓, 나아가서는 向後 展開될 偉대한 太平洋 時代를 主導하는 同伴者로서 共存共榮의 관계가 굳건히 構築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

## 技術協力提案에 對한 日本側 答辯 (가)

川崎重工業(株)

會長 梅田善司

技能工研修計劃 및 技術斡旋窓口的 活性化에 對한 私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昨年 11 월에 日韓兩國 사이에서 合意된 韓國技能工研修計劃의 第 1 陣 31 名이 來日하여 3 個月間의 研修를 마치고 今年 2 月 無事히 閉講式을 가졌습니다. 閉講式에서는 研修生들이 熟達된 日本語로 「日本の 現場 사람들의 研究熱이 대단한데 놀랐다. 우리들에게 대단히 親切하게 해주셨다」고 人事를 하였으며, 또 受容企業側도 「韓國研修生들의 眞摯하고도 熱心인 研修態度에 오히려 많이 배웠다」고 人事를 하여 매우 印象的이었습니다.

저희들 受容企業으로서 이 研修計劃이 극히 成功的으로 出發된 것을 衷心으로 기뻐하는 바입니다. 日韓兩國의 來日を 짊어질 젊은이끼리 單純히 技術研修 뿐이 아니라 相互理解와 相互信賴를 深化시키고 友情의 紐帶를 맺은 意義는 크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技能工研修計劃에 對해서는 昨年の 第 16 回合同會議 席上에서 저희들은 韓國技能工의 受容에 積極적으로 協助할 것을 約束드렸었습니다. 이 約束에 따라 저희들 民間에서 政府의 受容協議會의 멤버로 經團連 및 日韓經濟協會가 參加하여 韓國側의 希望技能과 日本側의 受容企業과의 調整을 擔當하였습니다. 그동안 日高 日本代表團 團長은 經團連常任理事會 席上에서 技能工研修計劃을 꼭 成功시키기 위해 經團

있습니다. 이러한 事情은 研修를 맡은 企業의 境遇에도 程度의 差異는 있을 방정 모두 다 있었읍니다만, 이 研修計劃이 日韓技術協力에 있어서 極히 重要하다는 見地에서 말기로 한 것이었으며 그 最大限의 努力의 結果가 31 名이 되었다는 點을 認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간에 저희들은 可能한 限 그와 같은 個別的인 事情을 克服하여 研修計劃의 擴充에 協力할 작정입니다 마는 第1陣의 經驗으로 미루어 저희들 民間의 努力에도 一定한 限界가 있다는 點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點은 技術斡旋窓口的 活性化에 있어서도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第14 回合同會議에서 合意된 以後 日韓, 韓日 兩經濟協會에서 窓口業務가 發足되어 總 20 件의 斡旋依頼가 있었읍니다. 日本側은 그것을 希望先企業에 傳達斡旋하였던 바 거의가 當該 日韓 兩會社間에서 이미 技術提携의 오과가 進行되다가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或은 企業秘密에 關係가 있어서 第三者의 斡旋에 실효 應하기 힘든 것 등이 많아서 별다른 實績을 올리지 못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러한 障礙를 어떻게 克服하면 좋을 것인지 斡旋의 內容이나 方法에 關해서 日韓 兩側의 窓口가 充分히 研究를 거듭해 주시기를 當付합니다.

## 技能工研修擴大提案에 對한 日本側 答辯(4)

經濟團體聯合會  
專務理事 三好正也

經團連의 三好올시다.

研修生受容協議會에 關係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方今 說明하신 梅日會長의 말씀을 補充하는 뜻에서 두가지 點을 追加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研修生側에서 본 同 計劃에 對한 評價인 바, 結論적으로 말씀드리면 研修生들은 이 프로그램을 높이 評價하고 있다는 點입니다.

國際協力事業團이 앙케이트를 통해 31 名의 研修生들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調査했는데 그 概略을 말씀드리면 研修生들의 來日目的인 研修는 內容적으로 達成되었다고 評價하고 있습니다. 同時에 日本社會 및 日本人들과 接觸해서 좋은 印象을 가졌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具體적으로 말씀드리면 于先 技術研修面에 있어서는 研修의 範圍, 水準 모두가 適當했으며 效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習得한 技術은 歸國後 그것을 活用할 機會가 많다고 보고 있는 研修生이 大部分이었습니다. 세번째로는 實地研修를 한 日本企業의 다른 工場등의 施設見學도 매우 興味が 있었고 많은 參考가 되었다는 意見이었습니다. 以上 세가지 點이 技術研修에 關한 것입니다. 그러나 若干 批判적인 意見도 있었는데 그것은 當然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企業機密에 屬하는 部分은 볼 수 없었던 케이스가 몇가지 있었다는 것으로 그러한 意見은 當然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日本社會 및 日本人에 關한 全般的인 意見에 있어서도 역시 세가지쯤 있습니다. 日本人의 共同作業者가 親切해서 研修中에 아주 親해졌다는 것이 그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日本人들의 일에 對한 熱意와 組織이 強하다는데 큰 感銘을 받았다는 것이며, 세번째는 日本人들이 人間的으로 清潔하다고 느꼈다는 點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批判的인 意見이 當然히 있었으며 그것은 日本人들은 韓國人에 對해 理解가 充分치 못하다는 것으로써 이런 意見은 극히 一部の 研修生들에게 있었습니다.

以上으로 미루어 總體的인 評價는 플러스였다고 本人은 느끼고 있으며, 이 研修計劃이 單純히 技術移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日韓兩國의 國民的 레벨에서의 相互理解의 增進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앙케이트調査로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까도 金專務께서 말씀이 세셨던 바와 같이 많은 應答者 가운데서 適格者가 選定되어 그 리스트가 日本側에 手交되고 日本側이 그들을 받아들일 企業을 찾는 過程에 關한 것인데, 아까 梅日會長께서指摘하셨듯이 여러가지 경우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케이스가 아무래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케이스인데 같은 研修生이라도 이쪽에서 이러이러한 業種에 이러이러한 研修內容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應募者를 내는 케이스로서 이런 경우에는 應募者의 거의 80 %가 받아들여지는 實例가 있습니다. 멕시코나 其他 나라들의 경우 그러한 方式이 취해지고 있어서 말하자면 이쪽에서 메뉴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韓國과 日本 사이의 研修計劃의 경우는 이쪽에서 메뉴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料理를 먹고 싶다고 메뉴

를 내놓으시는데 이쪽 레스토랑에도 여러가지 事情이 있어서 그쪽에서 먹고 싶다고 注文하시는 料理를 全部 應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데니즈”와 같이 여러가지 Fast Food 중에서 料理이름을 아신뒤에 메뉴를 定한 뒤 그것을 注文하시면 된다는 差異가 있다는 點입니다. 여기서 理解를 바라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點 때문에 그쪽의 要望에 100 % 應하기가 어렵다는 點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메뉴를 어느쪽에서 내놓느냐 하는데서 오는 基本的인 差異이므로 이 點을 부디 理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本人의 코멘트를 마칩니다.

## 韓國의 輸出促進團 日本派遣(提案)

裕東企業(株)

會長 金 鎮 河

오늘 韓·日 兩國財界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兩國間 交易의 擴大 均衡方案에 對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昨年에는 兩國關係에 特히 注目할 만한 일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于先 全斗煥大統領의 歴史的인 訪日로 兩國間의 協力雰圍氣가 高潮되었으며, 訪日直後인 昨年 10.5 ~ 12 까지 第16回 民間合同委員會에서 合意된 바에 따라 144名으로 構成된 輸入等促進團이 來韓하여 商談, 輸入可能商品開發을 위한 調査活動을 遂行한 바 있습니다. 輸入促進團의 訪韓結果에 對해서는 成果가 未洽하다는 等の 否定的인 反應도 一部 있었읍니다만, 長期的으로 보아서는 兩國民間 經濟界의 協力을 위한 雰圍氣 造成에 寄與했으며, 向後 交易擴大를 위한 씨를 뿌렸다는 점에서 肯定的인 評價가 可能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우기 同MISSION을 解體하지 않고 市場協議會의 形態로 存續시켜, 同機構를 中心으로 對韓輸入増大를 위한 各種 活動을 展開할 計劃으로 있음은 자못 鼓舞的으로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同促進團 派遣을 위해 協力해 주신 日本政府當局, 民間經濟界의 日本側 委員 여러분에게 深甚한 謝意를 表하며 特히 實務를 맡아 苦生하신 丸紅와 JETRO의 擔當者들의 勞苦를 致賀코자 합니다.

最近 兩國間의 交易現況을 概括해 보면 如前히 慢性的인 不均衡 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幅 또한 繼續 擴大되고 있



어 1965年 國交正常化以後 昨年까지의 韓國의 對日貿易赤字는 그 累計額이 約 300 億弗에 達할뿐 아니라 지난 한해 동안에도 30 億弗을 記錄, 우리나라 全體 赤字額의 約 2 倍나 되고 있는 實情인 것임니다. 다만 昨年の 境遇 對日輸出이 우리나라 輸出伸張率인 21 %를 크게 上廻하는 37 %나 伸張된 點과 對日輸入增加率인 22.4 %를 上廻했다는 事實은, 向後 韓日交易이 多少 改善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對日貿易不均衡은 兩國 交易構造의 差異에 起因하는 바라고도 합니다만 이러한 大規模貿易不均衡이 長期化되면 兩國間의 交流促進의 바탕이 되는 善隣關係를 해칠뿐 아니라 赤字國의 產業 經濟發展을 沮害하여 더욱더 그 解決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兩國間 交易을 擴大하면서 이같은 不均衡을 縮小하기 위해서는 韓國의 對日輸出努力이 重要합니다만 아울러 輸入하는 日本側의 政策的인 配慮도 誠實하게 要求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日本側의 向後 市場開放措置가 特히 韓國을 비롯한 開途國에 對한 그동안의 未洽함이 大幅 補完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繼續적이고 格別한 支援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對日交易擴大均衡을 위한 우리의 努力의 一環으로서 韓國側에서는 오는 5月 20 ~ 31日 大規模 對日輸出促進團을 構成 派遣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同促進團은 昨年 日本의 訪韓國輸入等促進團 訪韓直後 構成된 韓日市場協議會(會長 朴龍學)가 主管 派遣하는 것으로서 滯日期間을 通해서 昨年 輸入促進團 商談結果의 FOLLOW-UP, 地方都市巡廻商談, 展示會 및 SEMINAR 開催, 産業技術協力을 위한 各種 活動을 計劃

하고 있습니다.

實務적인 것은 日本側에 設置된 日韓市場協議會가 받고 있습니다만 同促進團 派遣期間中 實質적이고 內實있는 商談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日本側 委員 여러분의 積極적인 協力を 부탁드립니다, 同促進團 派遣이 慢性的인 兩國貿易不均衡이 漸進적으로 解決되는 始發點이 되고, 相互理解增進을 위한 交流擴大의 契機가 될 수 있도록 支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輸出促進團의 派遣成果를 보아 可能하면 今年 가을에라도 다시 한번 日本에 輸出促進團을 派遣시키코자 希望하고 있으며 이것이 實現될 場合에도 日本側 委員 여러분의 特別한 配慮가 있기를 미리 付託드리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1985 年 4 月 11 日

年度別輸出入推移

( 百萬弗 )

年 度	輸 出	輸 入	收 支
1970	835	1,984	△ 1,149
1971	1,068	2,394	△ 1,326
1972	1,624	2,522	△ 898
1973	3,225	4,240	△ 1,015
1974	4,460	6,852	△ 2,392
1975	5,472	7,274	△ 1,847
1976	8,115	8,774	△ 659
1977	10,046	10,811	△ 765
1978	12,710	14,972	△ 2,262
1979	15,055	20,339	△ 5,284
1980	17,505	22,292	△ 4,787
1981	20,993	26,131	△ 4,878
1982	21,616	24,251	△ 2,397
1983	24,223	26,192	△ 1,970
1984	29,245	30,631	△ 1,386

韓 日 貿 易

( 百 萬 弗 )

年 度	輸 出	輸 入	收 支
1980	3,039	5,858	△ 2,819
1981	3,444	6,374	△ 2,930
1982	3,314	5,305	△ 1,991
1983	3,358	6,238	△ 2,880
1984	4,609	7,637	△ 3,028

主 要 商 品 別 對 日 輸 出 推 移

( 百 萬 弗 , % )

區 分	1983		1984.1 ~ 11月		前年同期 比增加率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一 次 產 品	1,248	37.2	1,514	36.8	26.5
水 產 物	606	18.1	598	14.5	0.9
輕工業製品	1,046	31.1	1,175	28.5	43.3
纖 維 類	722	21.5	946	23.0	44.0
신 발 類	81	2.4	118	2.9	64.0
重化學製品	1,063	31.7	1,429	34.7	42.8
化 學	176	5.2	172	4.2	10.3
鐵 鋼	469	14.0	423	10.3	0.2
電 子	281	8.4	403	9.8	61.2
合 計	3,358	100.0	4,118	100.0	36.4

主要商品別對日輸入推移

(百萬弗,%)

區 分	1983		1984.1 ~ 11月		前年同期 比增加率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農 水 產 品	73	1.2	67	1.0	0
工 業 用 原 料	2,770	44.4	3,088	44.5	22.8
化 學	1,406	22.5	1,513	21.8	17.7
纖 維	366	5.9	387	5.6	16.6
鐵鋼・金屬	998	16.0	1,188	17.1	32.6
機 械 類	3,163	50.8	3,558	51.2	24.9
雜 製 品	104	1.6	103	1.5	0.7
其 他	128	2.0	125	1.8	1.2
合 計	6,238	100.0	6,941	100.0	23.1

## 輸出促進團日本派遣提案에 對한 日本側 答辯

丸 紅 (株)  
專務取締役 西尾 知

方今 하신 韓國側 提案에 對해 日韓市場協議會의 會長會社를 맡고 있는 關係上 주체넘은 것 같습니다만 本人이 發言을 하겠습니다.

于先 昨年 10 月에 日本으로부터 輸入等促進미션이 訪韓했을 때에는 韓日經濟協會를 비롯한 韓國側 여러분들의 德分으로 새로운 日韓關係의 出帆下에서 貿易・經濟交流擴大의 第 1 步를 構築한다는 所期の 目的을 成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깊은 感謝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日韓兩國의 貿易이 円滑한 擴大均衡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幅 넓고도 長期的인 理解와 努力이 相互間에 必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日本側미션의 訪韓後 그 Follow up 體制 構築의 一環으로서 日韓雙方에 市場協議會가 設立되었고 또 이번에는 韓國으로부터 輸出促進미션을 日本에 派遣키로 된 것은 그러한 點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韓國側미션의 訪日時에는 幅넓은 交流促進에 더한층 效果가 있게 하기 위해 東京뿐만 아니라 大阪, 名古屋 등 主要都市도 訪問하시고, 또 아직 韓國과의 貿易의 經驗이 없는 中小企業도 包含하여 샘플등 具體적인 材料를 根據로 商談과 懇談을 하시는 등 새로운 輸出市場을 發掘하시는 機會를 많이 마련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機會에 日本市場을 더욱 理解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日本市場紹介세미나, 工場見學, 東京에서의 國際見本市에의 參加등도 檢討中에

있습니다.

이번의 對日輸出促進미션의 派遣이라는 韓國側의 努力이 意義있는  
것이 되게끔 日本側으로서도 最大限의 協力を 하고자 念願하고 있으  
니 잘 부탁드립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 海 運 協 力 (提 案)

日 本 船 主 協 會  
常務理事 三上良造

1979年9月以後 海運振興法施行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日本船社는 韓國・北美間定期航路의 貨物積取에 있어서 웨이버의 取得이 條件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每年 本經濟委員會 會議席上에서 同規則의 再檢討등 善處를 要請하여 온바 있습니다. 昨年 웨이버制度의 嚴格한 適用에 關해서는 實際運用面에서 多少緩和되는 方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問題는 韓美航路에 關한 限 웨이버의 取得을 必要로 하는 船社는 日本船社 以外에는 不過 某外國船社 1個社뿐이라는 事實입니다. 特定國의 船社만에 限定된 特惠措置는 法制上 困難하다는 趣旨의 貴國의 立場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前述한 바와 같은 韓美航路에 있어서의 웨이버制度 適用實態에 비추어 日本航社에 對한 웨이버適用에 對해서는 그 具體的運用面에 있어서 더한층의 配慮를 하여 주시어, 日本船社가 同航路에 就航中인 다른 大部分의 第3國船과 同等한 立場에서 貨物積取를 할 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以上이 저희들의 부탁입니다만, 이번 會議에서의 日本側의 具體的인 提案은 本件 1件뿐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本件에 關한 日本海運業界의 非常한 關心과 熱意를 參酌하시어 特別한 配慮를 하여 주시기를 當부하는 바 입니다.



## 海 運 協 力 ( 答 辯 )

韓 國 船 主 協 會  
專 務 理 事 崔 在 洙

韓國은 定期船에 對한 市場支配는 앞으로 “定期船同盟의 行動規範에 關한 協約”에 의해 規制되는 것이 合理的이라 생각하고, 1979年 5月에 이 條約을 批准한 바 있으며, 이 條約이 1983年 10월에 發効됨으로써 이 條約上의 積取原則이 具體的인 實現段階에 아르렀읍니다.

貴國 定期船의 우리나라에서의 積取問題도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貴國이 아직 이 條約을 批准지 않고 있으며, 많은 EC 國家와 美國등이 역시 批准하지 않고 있어, 이 條約의 適用에 實務的인 隘路點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條約을 보다 많은 國家가 批准해서 貴國 定期船의 積取問題도 이 테두리 안에서 解決되기를 希望합니다.

## 韓日 國交正常化 20 周年 行事(提案)

韓 日 經 濟 協 會  
常勤副會長 李 尙 秀

1965 年 12 月 18 日 韓日國交正常화가 되어 今年으로 꼭 20 周年이 됩니다. 이것이 記念할만한 것이 나는 것에 對하여는 論議가 있을수 있겠읍니다만 兩國 國家元首의 相互訪問으로 兩國間의 協力寡困氣가 한층 무르익은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環境을 좀더 現實性있는 것으로 뿌리 박도록 하기 위하여 兩國委員會가 支援하여 다음의 行事를 今年內에 할것을 提議드리오며 兩國委員의 協力을 付託드립니다.

### 1. 심포지움 開催

兩國의 學者와 專門家를 參席시켜 兩國間의 그동안의 經濟交流를 歷史적으로 考察, 分析하며 將來에 對한 方向提示를 한다.

### 2. 靑少年 交流

兩國의 靑少年들이 相對國을 充分히 理解하는 것이 韓日兩國의 友好的인 關係維持를 爲하여 重要하다는 것은 說明을 必要로 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合同委員會에 參席하시는 여러 委員들께서는 韓日兩國을 往來하시어 어느 程度 相對國을 알고 계십니까만 靑少年層은 그러한 機會가 주어지지 못하여 그나마의 知識은 책이나 親知를 通하여 얻어진 것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歪曲된 印象을 가지고 있을 可能性도 相當히 있습니다.

兩國의 未來를 左右할 靑少年層을 相互訪問시켜 올바른 知識을 넣어주는 것은 兩國經濟界의 責任이라고 생각하며 兩國이 各各 50 名 內외의

大學生을 兩國經濟界의 支援下에 夏季放學期間中에 約 1 週日 程度씩 相對國을 訪問시킬것을 提議합니다. 細部事項은 兩側委員會 事務局이 協議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나만 基本諒解 事項으로는

- 1) 派遣國이 往復 旅費를 負擔하며
- 2) 받아들이는 쪽이 滞在費를 負擔한다는 것으로 하여 주실것을 付託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심포지움開催提案에 對한 日本側 答辯

日本長期信用銀行  
常務取締役 竹內 宏

日本長期信用銀行의 竹內올시다.

方今 李尙秀副會長께서 提案하신데 對해 意見を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韓日經濟協會側의 努力에 의해 日本과 韓國의 學者 또는 專門  
家間の 세미나가 몇차례 開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國交正常化 20 周年 記念行事로서 세미나를 開催하  
겠다는 提案은 大端히 좋은 일이라 贊成의 뜻을表합니다.

이에 關해서는 아까 朴龍學會長께서 報告하신대로 經濟協力長期構想  
研究委員會內에서 「2000 年代의 韓日・日韓經濟協力の 姿勢」에 對한  
共同研究가 곧 시작될 豫定이며, 이 研究팀에는 兩國에서 學者, 實務  
者, 專門家가 參加하는 組織이 곧 構成되게 되어 있으므로 提案하신  
세미나도 앞으로 發足될 組織과 깊은 關係를 가지면서 그들 멤버도  
包含해서 兩國間の 將來의 關係를 建設의이고도 自由롭게 討論하는 機  
會가 마련된다면 大端히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靑少年交流提案에 對한 日本側 答辯

日 韓 經 濟 協 會  
事務局長 高橋榮一

日韓經濟協會의 高橋을시 다.

方今 李尙秀副會長께서 提案하신 것 가운데 靑少年交流에 關해 日本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靑少年交流의 必要性에 對해서는 昨年の 第16回 合同委員會 會議에서도 強調된 바 있습니다.

特히 今年은 國交正常化 20 周年이라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此際에 兩國의 靑少年들의 交流를 통해 兩國의 國民 相互間의 接觸을 實現하여 젊은 世代들이 서로 認識을 깊게 한다는 것은 大端히 좋은 일입니다. 따라서 이 提案에 對해서는 日本側으로서도 贊成합니다.

그러나 提案하신 가운데서 時期, 經費, 혹은 靑少年들을 어떤 形態로 選拔하느냐 하는 등의 問題에 關해서는 앞으로 檢討가 必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를 檢討하고 計劃을 樹立하기 위한 말하자면 實行委員會 같은 것을 兩側關係者 사이에서 만들어서 早速히 檢討하고 計劃을 樹立하고자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 提案은 뜻 있는 趣旨이기 때문에 贊成합니다.

## 第 17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共同聲明

第 17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는 1985 年 4 月 10 日부터 12 日까지 大韓民國 慶州에서 開催되었다. 韓國側에서는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77 名, 日本側에서는 日高輝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68 名の 代表團이 參加하였다.

今年은 韓日・日韓 國交正常化 20 周年이 되며 또 最近의 兩國 首腦의 相互公式訪問을 契機로 하여 韓日・日韓 關係의 緊密化가 깊어지고 있으며 이 協力關係를 今後 促進시키는 것이 兩國經濟界의 責務라는 것에 認識을 새로이 하였다.

兩國間 經濟交流의 着實한 擴大는 相互의 經濟發展에 크게 貢獻하는 것이라는 共通의 理解에 立脚하여 貿易의 擴大均衡, 技術交流의 促進, 汎國民의 信賴關係 強化를 爲한 人的交流等を 幅 넓게 着實히 深化시키는 것이 重要하다는데 對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아 이를 爲하여 韓國으로부터의 大規模 對日輸出促進國의 派遣, 日本으로부터의 對韓投資 調查團의 派遣, 靑少年交流等の 實施에 對하여 原則적으로 合意하였다.

1. 兩側 團長의 人事에 이어 兩側의 基調演說이 있었다. 韓國側은 日本의 韓國에 對한 技術協力 및 經濟協力は 韓國經濟를 一層 發展시키는 데 貢獻할뿐 아니라 兩國間의 貿易擴大均衡等を 通하여 日本經濟의 發展에도 寄與하고 나아가서는 太平洋圈諸國의 經濟發展에 도움이 된다는 點을 強調했다. 日本側은 兩國關係는 새로운 飛躍을 向한 跳躍台에 서 있으며 2,000 年代에는 새로운 相互補完的 乃至는 競爭的 協調關係가 形成될 것이라는 展望에 立脚하여 이를 爲한 相互信賴關係의 紐帶를 더욱 鞏固히 하는 것이 重要하며 太平洋圈諸國과의

關係強化와 이에 의한 同地域의 活性化가 兩國經濟의 安定을 爲한 重要한 基盤이 된다는 것을 強調하였다.

2. 大韓民國 政府當局으로부터 韓國의 外國人 投資制度가 1984年 7월에 改訂되었고 또한 繼續해서 한층의 開放體制로 移行시키도록 努力하고 있다는 뜻의 說明이 있었으며 韓國에 있어서의 投資環境의 改善은 兩國經濟協力關係를 一층 發展시키는데 歡迎할만한 것이 라는 높은 評價를 兩側이 하였다.

또한 同制度의 說明에 關聯하여 日本側으로부터 外資導入法과의 關聯에 있어 中小企業調整法이 開放政策에 따른 形態로 運用되도록 하여 달라는 要望이 있었다. 이에 對하여 韓國側은 이 方向에 따라 關係當局에서 現在 檢討中이라는 回答을 하였다.

3. 下記의 4個專門委員會 合同會議의 報告가 있었으며 모두 異議 없이 採擇되고 各委員會의 活動이 더욱 活潑해진 것을 評價하였다.

(1) 第12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1985年 2月, 서울)

(2) 第10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1984年 5月, 日本賢島)

(3) 第5回 韓日・日韓經濟協力 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1985年 9月, 日本筑波)

(4) 第3回 韓日・日韓 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1985年 3月 東京)

4. 1985年 3월에 日本國 東京, 名古屋, 大阪에서 盛況裡에 開催된 韓國의 外國人投資制度 說明會에 對한 日本側의 協力에 對하여 韓國側으로부터 深甚한 謝意가 表門되었다. 또 韓國側은 日本의 對韓投

資促進을 爲하여 對韓投資調查團을 派遣토록 要請하였으며 日本側은 이에 對하여 派遣이 實現되도록 肯定的이며 積極的으로 檢討할 것을 約束하였다.

5. 兩側에 設置된 技術協力 斡旋窓口를 통한 技術移轉의 成果를 올리기 爲하여 보다 效果的인 方法, 內容을 새로이 研究하여 이의 活性化를 꾀할 것에 合意하였다.

6. 兩國政府間의 合意에 따라 1984年11月부터 韓國技能工의 日本研修가 實施되어 받아들인 企業의 協力에 依하여 技能習得뿐 아니라 兩國의 相互理解를 깊이 하는데 多大한 成果가 있었다는데 對하여 韓國側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이 初年度の 實績을 바탕으로 韓國側으로부터 2次年度以後, 보다 많은 技能工을 派遣하고 싶다는 要請이 있었다. 이에 對하여 日本側은 初年度の 成功이 優秀한 派遣技能工의 熱意와 받아들이는 企業의 誠意에 힘입은바가 크다고 하여 이를 높이 評價함과 同時에 今後에도 研修計劃의 擴充에 積極的인 支援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約束하였다.

7. 第1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의 合意에 따라 日本側이 大規模 訪韓國 輸入等 促進團을 派遣한데 對하여 韓國側은 謝意를 表明하고 이의 後續措置를 目的으로 兩側에 市場協議會가 設置된 것을 兩側 모두 評價하였다. 韓國側으로부터 今年 5월에 大規模 對日 輸出促進團을 派遣하겠다는 提案이 있었고 日本側은 韓國의 對日輸出이 한층 促進되도록 이를 받아들일 態勢를 갖추는 것을 約束하였다. 또한 韓國側은 同 輸出促進團의 成果를 보아 後續 派遣할 境遇의 日本側 協力を 要望하였다.

8. 海運協力에 關하여, 日本側은 韓美定期航路 貨物積取에 있어서의



連會員各社에 協力을 要請하셨습니다. 그리하여 結局 第1陣 31名の 受容先으로 17個社가 決定되어 3個月間の 研修가 實施되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그들 將來가 有望한 技能工諸君들이 各各 職場에 돌아간뒤 製品의 品質向上이나 國際競爭力強化의 核心이 되어 周圍에 技術向上의 태두리를 擴大시켜 나가기를 念願하고 있습니다. 日韓經濟協力에 있어서 저희들은 韓國産業의 基盤이 되는 中小企業의 技術水準을 向上시키고 基礎的인 技術의 充實化를 期하는 것이 지금이 緊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基礎的인 技術의 導入 및 普及이 全斗煥大統領의 國政演說에도 나타나 있듯이 韓國經濟의 根幹을 強化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앞으로도 技能工研修計劃의 더한층의 擴充을 위해 民間의 立場에서 積極的으로 協力할 것입니다.

그리고 第1陣 研修人員에 對해 韓國側이 當初 希望한 數보다 적은 不滿이 一部 韓國側에 있다고 듣고 있어서 한마디 附屬하겠습니다.

韓國側에서 希望하신 企業들에게는 各各 社内の 事情이 있는바, 例컨대 該當技術이 없거나 있어도 그 技術은 外國으로 부터의 導入 技術이어서 第三者에게는 提供할 수 없는 것이거나 或은 韓國의 다른 企業과 技術提携가 되고 있는 것, 또 現在 다른 企業과 技術提携가 交渉中에 있는 것, 나아가서는 極甚한 不況으로 研修生을 받아들일 餘裕가 없는 것, 이와는 反對로 時期가 공교롭게도 超奔忙期에 겹쳐서 物理적으로 受容餘裕가 없는 것, 그리고 社內에 受容施設이 없는 것 등 個個의 各社의 事情을 들어보면 不得已한 理由로 拒絶한 케이스뿐입니다. 또 韓國側의 事情으로 途中에 キャンセル된 케이스도

웨이버適用上, 한층의 配慮를 要請하였다. 이에 對하여 韓國側은 定期船同盟의 行動規範에 關한 協約에 따라시 規制되는 것이 合理的이라는 基本立場을 밝히고 日本도 同協約을 批准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定期船積取問題가 解決된 것을 希望함과 同時에 兩國의 利益이 되는 方向으로 檢討할 것을 約束하였다.

9. 韓日・日韓 國交正常化 20 周年을 맞이 하여

- i) 兩國의 學者, 專門家를 招聘하여 「韓日經濟交流」의 實績과 將來」(假題)에 對한 심포지움을 韓國에서 開催하고
- ii) 兩國의 友好關係를 깊이 하기 위하여 靑少年 交流를 實施하기 爲하여 兩側에 實行委員會를 設置하여 具體적인 計劃을 만들어 實現시키는 方向에서 合意하였다.

10. 다음의 會議는 來年봄 日本國에서 開催할 것에 合意하였다.

1985 年 4 月 12 日

韓國代表團 團長 朴 泰 俊

日本代表團 團長 日 高 輝

## 閉 會 辭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 朴泰俊

內外에 燦然히 빛났던 韓國의 古代佛教文化가 아직도 生生하게 숨쉬고 있는 이곳 新羅千年의 古都・慶州에서, 지난 10日부터 3日間に 걸쳐 韓日兩國의 經濟界를 代表하는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眞摯하고도 熱意에 넘치는 寡圍氣 속에서 서로의 關心事를 놓고 隔意 없는 協議를 거듭한 끝에, 오늘 뜻깊고 알찬 內容의 共同聲明을 發表하고, 第17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本合同委員會가 훌륭한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 모든 誠意를 아끼지 않으신 兩側代表團 여러분께 甚深한 謝意를表하는 바입니다.

이번 會議는 이것으로 幕을 내립니다만, 우리가 서로 合意하고 採擇한 共同聲明의 內容이 꾸준한 共同努力을 통해서 名實이 相符한 結實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여러분께 懇曲히 當附드립니다.

昨年4月の 第16回合同委員會에서 合意된 바에 따라 同年 10월에 訪韓國輸入等促進미션이 來韓하여 商談을 벌였던 뒤를 이어 오는 5月에는 韓國側으로부터 大規模의 輸出促進團이 訪日할 豫定인 바, 이러한 모든 活動은 兩國間の 鞏固한 紐帶와 協力을 通하여, 우리 두 나라의 共同繁榮은 물론이려니와 窮極的으로는 世界の 繁榮과 人類의 幸福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共通된 目的의 一環이라 하겠읍니다.

韓・日兩國의 國家元首의 公式相互訪問이 實現됨으로써 韓日兩國은 다가오는 太

平洋時代の 開幕을 앞두고 새로운 同伴協力時代의 門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 두나라의 經濟人들이 果然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自明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金 眼目으로 韓日關係의 發展과 定立을 위한 根源이 되는  
相互理解와 友好親善을 더욱 促進시키는 方案의 하나로 兩國國交正  
常化 20 周年이 되는 今年부터 靑少年交流를 實施키로 우리의 合同會  
議가 앞장선 것은 그 意義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每年 回數를 거듭할수록 各專門委員會의 活動內容이 더욱 充  
實해지는 한편 서로 問題點을 正確히 分析・把握하여 반드시 解決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意志를 보이고 있는데 對해 더 없이 感謝하  
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會議에 參席하시기 위해 訪韓하여 주신 日高團長을  
비롯한 日本側代表團 여러분께 韓國側委員一同을 代表하여 다시 한번  
깊은 感謝의 뜻을 表하며, 아울러 來年 日本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健安하시기를 祈願하면서 閉會의 人事를 마치겠습니다.

## 閉 會 辭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 日高 輝

敬愛하는 朴泰俊團長을 비롯한 韓國側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日本側  
代表團 여러분!

그저께부터 시작된 第 17 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도 方  
今 共同聲明을 採擇함으로써 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新羅의 古都・慶州에서 3日間 宿食을 함께 하고 胸襟을 털어  
놓고 對話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過去의 어느 機會보다도 즐거웠  
고 또 더한층 깊어진 友好的氛圍氣가 造成되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浦項製鐵所 見學에 즈음하여 韓國의 宮中音樂을 拜聽하였습니  
다만, 그때의 解說 가운데서 이미 3, 4世紀頃부터 韓國으로부터 日  
本으로의 音樂과 舞踊의 渡來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製鐵所와 關聯이 있는 이야기로서는 古代製鐵技法인 「다다라製  
鐵」이 日本 島根縣에 博物館으로서 復元・保存되고 있다고 하였는  
바, 이 「다다라」技法도 韓國으로부터 渡來한 것이라는 說이 有力  
합니다.

이와 같이 數千年前부터 日本과 韓國은 自由로운 來往에 의해 文  
物の 交流가 이루어짐으로써 強力한 紐帶로 連結되어 왔던 것입니다.

今年은 國交正常化 20周年이라는 記念할만한 해입니다만, 日韓兩國  
이 此際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들

民間經濟人으로서는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여 經濟發展을 期함으로써 옛 先人들의 業績에 부끄러움이 없는 關係를 構築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現在로서는 資本・技術 등의 面에서 貴國이 日本에 協力을 要望하는 것이 많은 것이 事實입니다만 來世紀 혹은 더 가까운 將來에 지난날과 같이 貴國으로부터의 文物의 渡來가 再現되는 것도 반드시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하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지금 地球는 옛날과는 극히 작아졌다는 事實입니다. 그러니 만큼 2國間의 問題가 當事者만의 關係로 그치지 않는 狀態인 것입니다. 環太平洋構想이 眞摯하게 檢討되기 시작한 것도 그때문이라 생각되며, 國際協調의 理念이 強力하게 呼訴되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狀況의 反映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討議된 案件 즉 韓國으로부터의 輸出促進團의 派遣, 日本으로부터의 投資調査團의 派遣, 技術移轉의 活性化, 靑少年交流의 促進 등은 모두가 사람과 文物의 交流와 關聯된 것이며, 옛적 古代에 있어서와 같이 극히 自由롭고 그리고 頻繁하게 그와 같은 交流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當然한 일로서 萬若 이에 對한 障礙가 있다면 그것을 除去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責務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 會議에 즈음해서 萬般의 準備와 多彩로운 行事を 마련해 주신 朴團長님을 비롯한 韓國代表團 여러분 그리고 事務局 여러분께 感謝를 드리면서 本人의 閉會辭를 마치겠습니다.

## 〈附 錄〉

### (I) 勳 章 授 與

가) 叙勳追叙經緯 및 故人의 略歷報告

本 合同經濟委員會 傘下의 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의 委員長職을 오랫동안 맡아주셨던 浦川淸人氏가 昨年 11月 作故하셨습니다. 이에 그 功勞를 기려 大韓民國政府는 産業鐵塔勳章을 追叙기로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申秉鉉 副總理께서 故浦川委員長의 末亡人이신 浦川愛子女史께 勳章을 傳達하게 되었습니다. 이 勳章追叙에 앞서 故人의 略歷과 勳章追叙 經緯를 簡單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故浦川淸人氏는 1920. 9.19. 大韓民國 木浦에서 出生, 木浦中學校 서울高等商業學校(서울商大의 前身)를 卒業한 日本財界 重鎮으로서 20餘年을 韓國에서 居住했습니다. 日本에서 神戶商業大學을 卒業한 故人은 1955年 IHI에 入社 昨年 11月 作故時까지 30餘年을 勤續했으며 同社의 常務取締役, 副社長, 常任顧問을 歷任했습니다.

故人은 日本PLANT業界의 權威者로서 兩國經濟協力擴大 및 對韓技術協力を 위해 努力했으며, 特히 1977年 兩國에 設置된 韓日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1983年에 設置된 韓日産業設備輸出協力會議의 設立을 主導했으며, 또한 作故하기까지 日本側 委員長을 歷任하면서 兩國産業協力を 위한 基盤造成에 크게 寄與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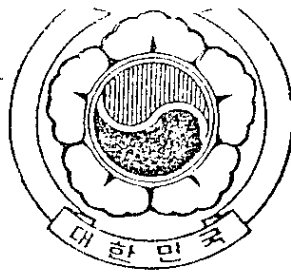
이에 故人의 功績을 기리고, 이를 大韓民國 政府 및 兩國財界는

잊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本合同會議의 場所를 빌어 大韓民國政府로부터의 鐵塔產業勳章을 追叙하게 되었습니다. 以上으로 故人の 略歷 및 經緯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韓國政府를 代表하여 申秉鉉 副總理兼 經濟企劃院長官께서 나오셔서 故人の 未亡人에게 勳章을 傳達하겠습니다.



제 673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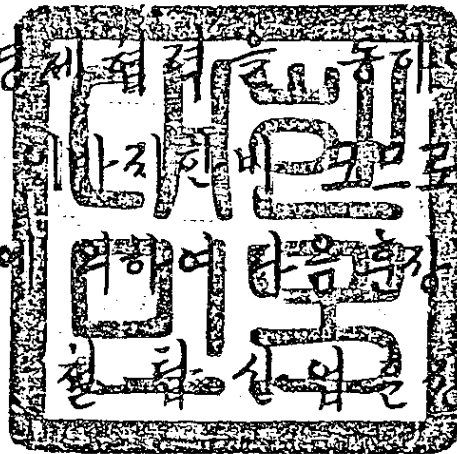


# 훈장증

일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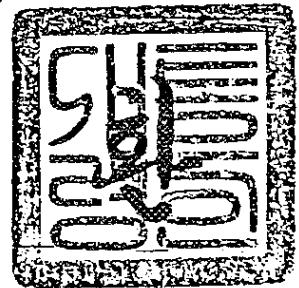
고 우라카와 기요또

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바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훈장을 추시함



1985년 4월 1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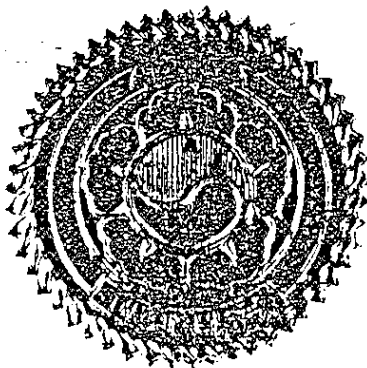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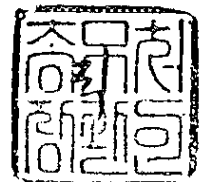
## 대통령 진 두



국무총리 서리 노 신 영

이훈은 산업부장부에 기입함

총무처장관 박 세



## (II) 日本側顧問人事

한마디 人事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韓國의 古都・慶州에서 開催되어 日韓兩國의 經濟界로부터 많은 분들께서 參席하시어 3日間에 걸쳐 日韓兩國의 經濟交流의 더한층의 緊密화와 發展을 위해 熱心히 討論을 거듭하신데 對하여 顧問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으로부터 感謝드립니다.

國家와 國家間的 關係에 있어서도 또 여러 團體끼리의 關係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과의 信賴關係의 積立이 基礎가 되어 보다 좋은 關係로 發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經濟委員會도 今年으로 第17回를 맞아 사람과 사람과의 信賴關係가 鞏固化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日韓間에 두터운 信賴關係를 構築한 故浦川淸人氏의 功績을 기려 韓國이 浦川末亡人에 對해 「鐵塔產業勳章」을 授與하신 것은 저희들 모두가 기뻐하는 同時에 다함께 慶賀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昨年10月 日本으로부터 松尾 丸紅會長을 團長으로 하는 輸入等 促進미션이 韓國을 訪問하여 많은 成果를 올렸읍니다만, 今年 5月에는 그 뒤를 이어 朴龍學會長을 團長으로 하는 對日輸出促進미션이 來日하시게 된 것을 眞心으로 歡迎하는 바입니다.

懸案인 兩國의 貿易不均衡問題에 있어서는 兩國이 縮小均衡의 方向으로 解決할 것이 아니라 韓國, 台灣, 中共, 아세안各國을 包含한 아시아太平洋地域의 交流擴大 속에서 解決을 圖謀하는 것이 重要합니다.

이러한 努力이 없이는 世界經濟속에서의 아시아의 다이내미즘에 브레이크를 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人은 大韓商工會議所の 鄭壽昌會長님과 兩 商工會議所の 톱 레벨 會合을 자주 갖기로 되있는 바 于先 今年 6 月에 懇談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今年은 日韓國交正常化 20 周年이 됩니다. 各種 記念行事가 兩國에서 計劃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契機로 兩國關係가 더욱 成熟되게 發展할 것을 懇切히 바라면서 人事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顧問

日本商工會議所 會頭 五 島 昇